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58-11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The 40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2019년 12월





목 차 Contents

I	회의 개요	1
	1. 회의 개요	2
	2. 참가대상 및 주요 인사	2
	3. 의제 목록	2
	4. 회의 구성 및 일정	6
	5. 종합 관찰	11
II	본회의(General Policy Debate) 결과 보고	13
	1. 회의 개요	14
	2. 회의 결과	15
III	분과회의 결과 보고	23
	1. 합동(JOINT)위원회	24
	2. 교육(ED) 분과회의	28
	3. 자연과학(SC) 분과회의	40
	4. 인문사회과학(SHS) 분과회의	50
	5. 문화(CLT) 분과회의	58
	6. 정보커뮤니케이션(CI) 분과회의	71
	7.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APX) 분과회의	83

IV	제6차 국가위원회 총회 결과 보고	101
	1. 신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역량강화 워크샵	102
	2. 제6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108
V	주요 선거 결과	125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126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122
	3.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	130
VI	기타 회의 및 행사 결과	131
	1. 교육(ED) 분과위원회 고위급 회의	132
VII	한국 대표단 명단 및 주요 활동	137
	1. 참가 목적	138
	2. 대표단 명단	138
	3. 주요 활동	140
VIII	참고자료	141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	142
	2. 사진 자료	145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2. 참가대상 및 주요 인사
3. 의제 목록
4. 회의 구성 및 일정
5. 종합 관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

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The 40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기 간 : 2019.11.12.(화) ~ 11.27(수)
※ 제6차 국가위원회 총회 : 2019.11.15(금)~16(토)
- 장 소 :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2 참가대상 및 주요 인사

- 참가 대상
 - 193개 정회원국 대표단 및 준회원국 대표단
 -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대표
 -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 옵저버 등

3 의제 목록

의제 번호	의제 제목
1.1	제39차 총회 의장 개회
1.2	신임장위원회 선출 및 동 위원회 보고
1.3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4	의제 채택
1.5	총회 및 분과위원회 의장단 선출
1.6	회의 일정
1.7	비공식 관계 NGO 총회 옵저버 지위 승인

의제 번호	의제 제목
2.1	2014-2017년도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2.2	집행이사회 활동 보고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4.1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4.2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4.3	2020-2021년도 책정 예산 결의안 채택
4.4	임시 예산 상한 채택
5.1	2020-2021년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회원국 제안
5.2	예루살렘과 39C/Resolution 36 이행
5.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39C/Resolution 55 이행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5.5	청년포럼 결과
5.6	교육 관련 카테고리1센터 관리
5.7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강화
5.8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SSIS) 결과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5.9	201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이행 프레임워크
5.10	국제교육국(IBE)의 미래
5.11	유네스코 청년 및 성인 문해 전략(2020-2025)
5.12	국제이슬람예술의날 선포
5.13	국제수학의날 선포
5.14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IL) 주간 선포
5.15	유네스코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규정 개정
5.16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5.17	문화장관포럼 결과 요약 보고
5.18	SDG 4 - 교육 2030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조정 및 지원
5.19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IHP) 국제이사회 규정 개정
5.20	오픈 사이언스 권고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법적 측면
5.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 선포
5.22	세계예술의날 선포
5.23	세계 올리브 나무의 날 선포

의제 번호	의제 제목
5.24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규범설정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
5.25	정보사업 정부간위원회(IFAP) 규정 개정
5.26	2019 세계토착어의해 전략적 결과 문서
5.27	교사 정책 대화를 위한 국제 유형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 유형 관련 국제기준(ISCED-T) 개발
5.28	노예 경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저항, 자유, 유산
5.29	예술교육 및 세계예술교육주간 인식 제고
5.30	세계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후손 문화의 날 선포
5.31	세계 논리의 날 선포
5.32	세계 포르투갈어의 날 선포
5.33	2022년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해 선포
5.34	사이버따돌림 포함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방지를 위한 국제 기념일 선포
5.35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전략
5.3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관련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구 현장의 기여
5.37	세계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인종혐오범죄 제거
6.1	유네스코 지배기구 거버넌스, 절차 및 작업방식
6.2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7.1	행정 심사위원회: 관할권 유효기간 연장
7.2	총회 진행규칙 개정
7.3	유네스코 헌장 제V조에 대한 수정안
7.4	유네스코 헌장 제V조에 대한 수정안
7.5	유네스코 헌장 제VI조 2문단에 대한 수정안
8.1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및 문안 채택
8.2	공개교육자원(OER) 권고 문안 제안
9.1	2015년 성인 학습 및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9.2	2015년 기술직업교육(TVET)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9.3	1993년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 인증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9.4	2015년 박물관과 컬렉션 보호 및 사회적 역할 증진에 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9.5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9.6	1980년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9.7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의제 번호	의제 제목
9.8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제4차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9.9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가입국 간 분쟁 해결 기구인 화해 및 중재 위원회 자문
10.1	비정부기구(NGO)의 유네스코 활동 기여 4개년 보고
10.2	유네스코 협회, 센터 및 클럽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11.1	2018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11.2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그리고 운영기금
11.3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12.1	직원 규정 및 규칙
12.2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
12.3	UN 공동직원연금기금
12.4	의료혜택기금(MBF)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2.5	2017-2022 인적자원관리전략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12.6	통합파트너십전략 2개년 보고
13.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및 본부위원회의 보고
14.1	집행이사국 선거
14.2	제41차 총회 법률위원국 선거
14.3	본부위원국 선거
14.4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가입국 간 분쟁 해결 기구인 화해 및 중재 위원국 선거
14.5	국제교육국(IBE) 위원국 선거
14.6	정보사업 정부간위원회(IFAP) 위원국 선거
14.7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국 선거
14.8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IH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4.9	불법이전문화재 반환촉진(ICPRC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4.10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프로그램(IPDC)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4.11	사회 변동 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4.12	생명윤리위원회(IGBC)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거
14.13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위원국 선거
14.14	유네스코 통계국(UIS) 이사국 선거
14.15	아스완 누비아 박물관 및 이집트 문명 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 캠페인 집행위원회 위원국 선거
15.1	제41차 총회 장소

4 회의 구성 및 일정

- 본회의(Plenary Meeting)
 - 개회식 : 2019.11.12(화)
 - 폐회식 : 2019.11.27(수)
 - 일반정책토론(General Policy Debate) : 2019.11.13(수) ~ 18(월)
 - 유네스코 사무총장 일반정책토론 답변 : 2019.11.18(월)
 - 주요 내용 : UN 사무총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유네스코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및 AI 윤리원칙 등 중요한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점에 사의를 표함. 제39차 총회 의장 및 집행이사회 의장은 재정 위기 하 유네스코의 전략적 전환, SDG 4 이행 등 노력을 소개함.
 - 논의 의제 :
 - 1.1 제39차 총회 의장 개회
 -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 보고
 - 1.4 의제 채택
 - 1.5 제40차 총회 및 분과위원회 의장단 선출
 - 1.6 회의 일정
 - 1.7 비공식 관계 NGO 총회 옵저버 지위 승인
 - 2.1 2014-2017년도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2.2 집행이사회 활동 보고
 - 4.3 2020-2021년도 책정 예산 결의안 채택
 - 7.3 유네스코 헌장 제V조에 대한 수정안
 - 14.1 집행이사국 선거
 - 15.1 제41차 총회 장소
-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 기간 : 2019.11.13(수), 27(수)
 - 주요 내용 : 대다수 회원국이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534.6백만불)를 지지해 통과됨.
 - 논의 의제 :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4.3 2020-2021년도 책정 예산 결의안 채택
- 4.4 임시 예산 상한 채택
- 5.5 청년포럼 결과

- **교육 분과회의(ED Commission)**

- 기간 : 2019.11.13(수) ~ 16(토)
- 주요 내용 : 중기전략 초안 관련, 다수 회원국은 SDG 4 이행에 있어 유네스코의 리더십 및 조정 역할 강화, 유엔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소외계층 포용, 첨단기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협약 채택에 있어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하며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 증진에 큰 성과를 만들어냄.
- 논의 의제 :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4.2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5.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39C/Resolution 55 이행
 -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 5.6 교육 관련 카테고리1센터 관리
 - 5.9 201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이행 프레임워크
 - 5.10 국제교육국(IBE)의 미래
 - 5.11 유네스코 청년 및 성인 문해 전략(2020-2025)
 - 5.18 SDG 4 - 교육 2030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조정 및 지원
 - 8.1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및 문안 채택
 - 9.1 2015년 성인 학습 및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9.2 2015년 기술직업교육(TVET)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9.3 1993년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 인증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자연과학 분과회의(SC Commission)**

- 기간 : 2019.11.18(월) ~ 19(화)
- 주요 내용 : 회원국은 유네스코 과학 사업이 SDG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감

하며, 오픈 사이언스 관련 자문위원회 확대 및 규범 초안 제출을 요청함.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를 비롯한 자연과학분야 5개 센터 설립을 승인함.

- 논의 의제 :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4.2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 5.13 국제수학의날 선포
- 5.19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IHP) 국제이사회 규정 개정
- 5.20 오픈 사이언스 권고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법적 측면
- 5.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 선포
- 5.33 2022년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 해 선포

●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SHS Commission)

- 기간 : 2019.11.20(수) ~ 21(목)

- 주요 내용 : 회원국들은 학제간 성격 및 다자협력 기구로서 유네스코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불평등, 기후변화, AI 등 지구적 과제에 유네스코의 기여와 활동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AI 윤리 규범 제정 등 국제기준 마련에 유네스코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지함

- 논의 의제 :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4.2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5.15 유네스코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규정 개정
- 5.24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규범 설정 가능성에 대한 예비 조사

● 문화 분과회의(CLT Commission)

- 기간 : 2019.11.19(화) ~ 22(금)

- 주요 내용 : 회원국들은 문화 분야 6개 협약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조 유지와

2030어젠더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문화의 국가 및 로컬 단위 정책에의 통합을 강조한 40C/5 초안을 지지함. 우리나라가 신청한 세계유산해석 국제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대한민국 세종시) 설립 결의안이 성공적으로 채택됨.

- 논의 의제 :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4.2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5.2 예루살렘과 39C/Resolution 36 이행
- 5.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39C/Resolution 55 이행
- 5.7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하 협약 강화
- 5.12 국제 이슬람 예술의 날 선포
- 5.16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 5.17 문화장관포럼 결과 요약 보고
- 5.22 세계 예술의 날 선포
- 5.23 세계 올리브 나무의 날 선포
- 9.4 2015년 박물관과 컬렉션 보호 및 사회적 역할 증진에 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9.5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9.6 1980년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CI Commission)

- 기간 : 2019.11.18(월) ~ 19(화)
- 주요 내용 : 대대적인 CI 섹터의 구조 개편은 지양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41C/4 및 41C/5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됨. 또한, IPDC, IFAP 등 정부간위원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

- 논의 의제 :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4.2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5.8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 SIS) 결과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5.14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IL) 주간 선포
- 8.2 공개교육자원(OER) 권고 문안 제안
- 9.7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 제4차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9.8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제4차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APX Commission)**

- 기간 : 2019.11.13(수) ~ 16(토)
- 주요 내용 : 회원국 간 41C/4 및 41C/5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직급 재분류 정책 및 사무국 내 직원 채용 지리적 배분 개선 등 내부 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았음. 다수 회원국은 전략적 전환의 성과를 환영하며, 관련 부서의 임기 연장을 요청함.
- 논의 의제 :
 - 1.3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4.1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4.2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 5.1 2020-2021년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회원국 제안
 - 6.1 유네스코 지배기구 거버넌스, 절차 및 작업 방식
 - 6.2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 10.1 비정부기구(NGO)의 유네스코 활동 기여 4개년 보고
 - 11.1 2018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 11.2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그리고 운영기금
 - 11.3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 12.1 직원 규정 및 규칙
 - 12.2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
 - 12.3 UN 공동직원연금기금

- 12.4 의료혜택기금(MBF)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2.5 2017-2022 인적자원관리전략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 12.6 통합파트너십전략 2개년 보고
- 13.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5 종합 관찰

- 회원국 간 유네스코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었으며, 유네스코가 SDG 4 뿐만 아니라 AI 등 다학제간적 이슈에서도 적극적인 선도 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음.
-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사명이 중요함에 공감하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상징하듯, 대다수 회원국들이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으로써 앞으로 유네스코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함.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본회의 (General Policy Debate)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2. 회의 결과





본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

- 개회식 : 2019.11.12(화)
※ '청년의 시각에서 본 다자주의' 행사 동시 진행
- 일반정책토론 : 2019.11.13(수) ~ 18(월)
- 사무총장 답변 : 2019.11.18(월)
- 본회의 보고 : 2019.11.25(월) ~ 27(수)
- 폐회식 : 2019.11.27(수)

● 요지

- 개회식에서 UN 안토니오 구테헤르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유네스코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및 AI 윤리원칙 등 중요한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점에 사의를 표함.
- 총회 의장 및 집행이사회 의장 등은 재정 위기 하 거버넌스 개혁, SDG 이행 등 유네스코의 노력을 소개
- 신임 의장 및 분과위원회 의장 등 의장단 구성
- 이어진 일반정책토론에서 다수 회원국은 유네스코의 사명의 중요성과 조직의 다학제간적 성격의 이점을 강조하며, 사무국의 재정난 돌파 노력 및 사무총장의 전략적 전환 이행 노력에 사의를 표함.
- 다수 회원국은 SDG 4 이행, AI 관련 윤리원칙 제정, 여아교육, 가짜뉴스 등의 이슈를 특히 강조하며, 자국 내 관련 성과를 보고함.
- 일부 회원국은 SIDS 국가 역시 유네스코의 글로벌 우선순위로 지정되어야 함을 지적함.

2 회의 결과

●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기조발언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파리평화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특히 5가지 위협 요소에 주목했음을 밝힘. 첫 번째 위협 요소는 경제적 분열로, 세계 2대 경제강국은 세계를 나누어놓고 있는 현실에 부딪혔지만,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통해 화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함. 두 번째 위협 요소는 사회적 계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 바, 불평등, 실업난 등의 문제는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함을 강조함. 이를 위해 포용적인 세계화를 통해 SDG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힘. 세 번째 위협 요소는 사람들 간의 분열로, 혐오 표현,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피력함. 넷째, 지구와 인간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음을 강조함. 기후변화는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도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함. 마지막으로, 기술적 변화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언급함. 인간의 삶을 윤곽하게 해주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 및 사이버 범죄도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함.
- 이러한 배경 하 유네스코의 역할은 중요한 바, 유네스코가 과학 내 윤리적인 이슈, 지식의 혜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해내는 기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AI 윤리 등에 대한 글로벌 담론의 장을 열어주는 유네스코의 노력을 치하함. 자연 과학 사업 역시 집단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교육은 2030 아젠다 달성에 중요하지만 성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유네스코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교육의 미래에 대해 진행한 행사에 사의를 표함. 교육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혐오발언 규제 및 종교적 유적지 보호에 대한 UN 차원의 이니셔티브 역시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힘. 책무성이 요구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네스코가 언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기초를 다져야 할 때이지만, 인류 대부분에게 국제협력은 의미가 크게 없고,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제금융기구 등과 더 가까이 협력해야 하며,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포용적인 다자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함. 청년들은 최근 특히 더 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소녀들은 조혼 및 조기 임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함. 기후변화 및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이번 세대는 견잡을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임을 피력함. 그들이 문제해

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지어나가고, 인류를 위한 해결책 모색에 함께 협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 H.E. Mrs. Zohour Alaoui (모로코) 제39차 총회 의장 개회

- Alaoui 의장은 본인이 총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유네스코에 있었던 여러 위기와 변화들 중 첫 번째로 재정위기가 있었으나, 최근 정규 분담금 납부로 인해 안정되었고, 자발적 기여 역시 증가하여 회원국들의 유네스코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힘. 그러나 유네스코는 비정규 기여금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강조함. 비정규 기여금은 안정성이 결여된 재원임을 설명함. 두 번째 변화는 신입 고위급 임원들의 임명과 그에 따른 조직 개혁 노력임을 밝히며, 조직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내 국제정부간위원회들도 이를 위한 모임을 개최한 바 있음을 알림. 세 번째는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인데,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의 사명은 당연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함. 평화라는 개념을 전쟁의 불가능(impossibility of war)으로 정의하고, 유네스코의 역할은 그 본연의 미션대로 이러한 평화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유네스코는 또한 인류가 공동의 유산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는 중요한 기구이며, 이러한 공동의 유산이 집단적 정체성을 구현하여 평화로운 공존과 다양성을 가능케 하는 자산임을 설명함.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 자연, 무형 등의 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인류 공동의 책임임을 언급함. 각종 유산의 신규 등재, 모슬 이니셔티브 등 유네스코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협약뿐만 아니라 STI의 역할도 중요함을 피력함. 마지막으로, 유네스코는 오늘날 가치관의 전파를 그 고유의 사명의 일부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인류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력, 일관성, 유연성이 필요함. 어렵더라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유네스코의 문화는 우리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제임을 밝힘.

● 이병현 집행이사회 의장 기조발언

- 이병현 의장은 유네스코가 평화를 구축하려는 45개국의 모임에서 시작해 오늘날 193개국 회원국이 모여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명에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함. 그러나 지난 70년간 세계는 크게 변

화했으며, 어느 한 국가도 새로운 도전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설명함. 지난 4년 반 간 주유네스코 대사와 집행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목격한 다자주의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정신이 유네스코에 지속되길 희망함. 또한, 씨름의 남북한 공동 등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크게 기여했으며, 남한과 함께 협력한 북한 측의 의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남북한 DMZ 공동 등재 등의 유네스코와 아줄레 총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희망함.

- 2020-2021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결정할 이번 총회에서는 C/4, C/5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현장이 유의미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임. 참가자들 간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지난 70년간 그랬던 것처럼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우리가 가치와 액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자주의의 장이 될 것임.
 -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 2년마다 온 세계가 모이는 총회에서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됨. 지난 2년간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총회 의장직을 훌륭히 수행해준 의장께 사의를 포함.
- H.E. Mr. Altay Cengizer (터키) 제40차 총회 의장 기조발언
- 제40차 총회는 유네스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회원국과 사무총장을 도와 공동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의견을 듣고자 함을 밝힘. 의장은 유네스코의 노력으로 인류는 유·무형 유산의 보호가 곧 인류의 보호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인식이 여러 모로 바뀌었으며, 청년 및 소녀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바 있음을 설명함. 비록 불평등이나 빈곤 등 모든 난제를 풀지는 못하고 있지만,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가 함께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함.
 - 특히, 장애아동, 난민, 이주민 등 소외된 인구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함. 인문사회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최근 AI의 성차별 관련 보고서인 "I Would Blush If I Could"에서 볼 수 있듯이 동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함. 아프리카 우선순위는 유지되어야 하며, 민간 섹터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치화를 지양하고 특히 SIDS 국가가 마주한 기후변화 관련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더 강력한 유네스코(a stronger UNESCO)는 그 어떤 국제기구도 해낼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함.

-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일반정책토론 소개**
 - 아줄레 사무총장은 21세기에는 분열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연설을 시작하며, 다자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오늘날 집단행동과 통합(unity)을 강조함. 유네스코는 효율적인 기구가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UN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UN 개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설명함. 유네스코는 특히 전략적 전환을 통해 21세기 도전과제에 맞서고자 한다고 밝힘. 또한, 유네스코는 특히 국장급에서 성평등을 달성했음을 밝힘. 오늘날 유네스코는 사람 간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인 젊은 세대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또한, 유네스코의 아프리카 및 성평등 글로벌 우선순위는 그 어느 때보다 유의미하며, 아이디어의 실험실 및 규범설정 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한다고 언급함.
 -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특히 소녀 등 다음 세대 들에 보편적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함. 아프리카 내 교육 투자, 소녀 교육, 교원 양성 등 강조함.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맞게 교육을 조정하여 21세기의 진정한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밝힘. 또한, 유네스코는 언론의 자유 및 언론인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설명함.
 - 과학 사업 관련, 유네스코는 과학의 혜택이 모두에게 갈 수 있게 오픈 사이언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자 하며, 인류학적으로 과거에서부터의 큰 도약에 맞먹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 원칙을 세워나가고자 함을 밝힘.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에도 다자주의를 통해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문화유산 관련, 지난 12월 씨름의 남북한 공동등재를 통해 문화유산의 평화에 대한 역할을 확인했으며, 향후 DMZ 등재를 통해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자 함을 밝힘. 모술 재건은 평화와 탄력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의 대표적 이니셔티브로 소개함. 아프리카의 유산은 글로벌 유산 분야에서 충분히 대표되고 있지 못하나, 창의도시 등을 통해 그들의 개발 잠재력이 충분히 이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동 총회에 옵저버로 참석한 청년들은 현장에서의 행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강조함.
-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자주의 고위급 패널’ 부대행사 주요 내용**
 - 세계 각 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청년 대표들은 UN 역사상 최초로 회원국 수석대표와 청년 대표 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함. 청년 대표들은 특히 기후변화, 교사의 역할, AI 등 신기술 관련 정책 개발, 혐오발언 규제 등 산적한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한 층 더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이를 위해서는 다자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해나아가야 함을 피력함.

- 고위급 패널에 참가한 수석대표(타지키스탄, 엘살바도르, 안도라, 라트비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등)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각 국 정부가 청년의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 펼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함.

● 한국 수석대표 기조발언 주요 내용

- 김동기 주유네스코대한민국 대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재건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사례임을 설명함.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전쟁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토대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나가 고자 함을 밝힘.
- 한국은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 UN 해양과학 10개년 등 주요 현안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힘.
- 특히, 한국은 유네스코와 함께 2020년도 글로벌 MIL 대표회의 및 청년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을 밝힘.

● 주요국 대표 일반정책토론 연설 요지

- 일본 : Ueno Michiko 일본 문무과학성 부대신은 세계기록유산제도의 목표는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회원국간 우정과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데 있음을 설명하며, 정치화를 방지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네스코와 전문가를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어일본은 작업반 논의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내년에 동 제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이 외에도 문화 유산 보호,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 UN 해양과학 10개년 등의 노력을 지지하며, 새로 채택된 'ESD Beyond 2019'를 환영함.

- **러시아**: 러시아는 정치화를 지양하고 회원국이 승인한 사명을 위해 일하는 유네스코를 희망함. 유네스코는 신뢰와 상호이해, 민족정체성의 존중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교원 역량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고등교육 자격 인정 협약 채택을 환영함. 본부는 우크라이나 등의 러시아 언어 배제(elimination)를 방관하지 않아야 함을 피력함. 기초과학을 강조하며, 해양 10개년, MAB 등 이니셔티브의 잠재력을 강조함. AI 윤리 원칙이 동 총회에서 채택되길 희망함. 기술의 발전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바, 인문사회과학의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이슈에 집중하여 유네스코의 다학제적 성격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고 밝힘. 러시아는 반도핑협약을 지지하며, 유네스코 활동에 청년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국가위원회와 협력 강화. 우선순위 아프리카 강화를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문제에는 아프리카의 해결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힘.
- **북한**: 조선반도에서 평화, 번영과 통일의 주인은 조선 민족 자신이며,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록과 같은 문제들은 북남 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과 남이 먼저 합의해야 할 일임. 오늘날 특정 국가의 강압과 독단에 의해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선택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재, 압박과 제도정복 시도들이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유네스코가 진정한 국제적 정의 실현에서 응당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주의 문명강국,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제재학살 책동으로 인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지만, 우리는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 문명을 이룩해나갈 것임.
- **프랑스**: 기술이 발전할수록 유네스코의 사명은 더욱 중요함. 교육 내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 소녀 교육 및 여성 권의 신장(empowerment) 분야에 대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지지함. 글로벌 우선순위 아프리카 관련, 아프리카 내 교육 사업을 위한 비정규 예산이 늘어난 것을 환영하며, 프랑스는 내년에도 학교 내 폭력 근절 등 아프리카 교육 사업을 지원할 것임. 지난 7월 G7 교육장관 선언에 이어, 프랑스는 학교 내 폭력(bullying) 근절의 날 선언을 제안함.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해야 함. AI 윤리 규범을 설정해 교육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함.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 관련, 프랑스는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 노력을 지지하며, 모술 이니셔티브에서 볼 수 있

뜻이 인류 공통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임. 언론인 안전과 언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함. 프랑스는 전략적 전환을 지지하며, 534M 예산안의 채택을 환영함. 유네스코 헌장 개정 관련, 긴 협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유네스코 개혁에 도움이 되길 희망함.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Ambassador Altay Cengizer (터키)
- 부의장 : 34개국
- 분과위원회 의장
 - 교육(ED) 분과위원회 : H.E. Mr. Shafqat Mahmood (파키스탄)
 - 자연과학(SC) 분과위원회 : H.E. Mr. Stephen Simukanga (잠비아)
 - 인문사회과학(SHS) 분과위원회 : H.E. Ms. Viviane Morales Hoyos (콜롬비아)
 - 문화(CLT) 분과위원회 : H.E. Mr. Abbas Salim Halabi (레바논)
 - 정보커뮤니케이션(CI) 분과위원회 : H.E. Mr. Christian Ter-Stepanian (아르메니아)
 - 재정정보프로그램대의협력(APX) 분과위원회 : H.E. Ms. Maria Diamantopoulou (그리스)

● 관찰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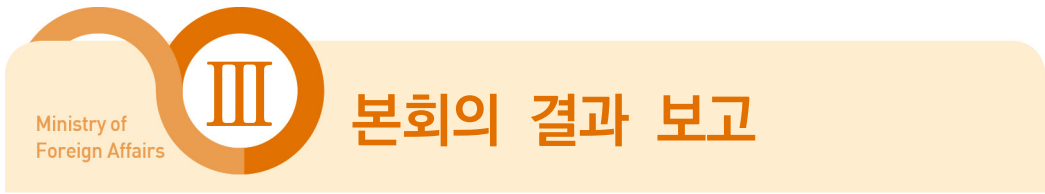
- 다수 회원국은 사무국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난 집행이사회 때의 논의와는 달리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국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회원국들의 유네스코에 대한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며 다양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교육, AI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 설정에 있어 선도적인 기구가 되길 요청하는 회원국들의 기대치에 부응했는지는 미지수임. 다자주의가 도전을 받는 시류에도 그 어느 때보다 유의미한 사명을 가진 유네스코가 사업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고위급 패널은 국제회의에서 흔치 않은 시도로 참신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희망함.



분과회의 결과 보고

1. 합동(JOINT)위원회
2. 교육(ED) 분과회의
3. 자연과학(SC) 분과회의
4. 인문사회과학(SHS) 분과회의
5. 문화(CLT) 분과회의
6. 정보커뮤니케이션(CI) 분과회의
7.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APX) 분과회의





1 합동(JOINT)위원회

- 회의 기간 및 장소
 - 2019.11.13(수) 10:00-13:00 / Room II
 - 2019.11.27(수) 10:00-13:00 / Room II
- 요지
 - 대다수 회원국이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534.6백만불)를 지지하였으며, 이를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국은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존중해 반대의견을 의장 구두 보고서에 포함 후 결의안이 통과됨
- 논의 의제 및 일정
 - 개회 및 의제 채택
 - 의제 4.4 임시 예산 상한선 채택
- 의장단 선출
 - Ms Maria Diamantopoulou (그리스) APX 의장으로 선출
 - Mr Shafqat Mahmood (파키스탄) ED 의장으로 선출
 - Mr Stephen Simukanga (잠비아) SC 의장으로 선출
 - Ms Viviane Morales Hoyos (콜롬비아) SHS 의장으로 선출
 - Mr Abbas Salim Halabi (레바논) CLT 의장으로 선출
- 상세 내용

의제번호	4.4
의제제목	임시 예산 상한선 채택
	Adoption of the Provisional Budget Ceiling

- 사무국이 예산 상한 수정(안)을 다시 안내한 후 여러 회원국이 의견을 표명하며 토론이 진행됨.

• 사무국이 준비한 결정문 수정(안)

“The Joint Meeting of Commissions,

1. Decides to recommend that the General Conference endorse the integrated budget for 2020-2021 of \$1,329,115,300, which includes an appropriated regular programme budget of \$534.6 million, (funded by assessed contributions of \$523.6 million plus \$11 million from the unspent balance of the 38 C/5 regular budget).”

회원국별 입장표명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 지지 (534.6백만 미불)	Zero Nominal Growth(518백만 미불) 예산 시나리오 지지	
	컨센서스에 의한 의견 존중	534.6백만 미불 시나리오 반대
가봉,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파라과이, 수단, 불가리아, 가나, 핀란드, 베트남,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방글라데시, 니제르, 세네갈, 짐바브웨, 요르단, 모로코, 모리타니,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그리스, 알제리, 튀니지,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대한민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토고, 모나코, 우즈베키스탄, 적도기니, 카메룬, 독일	헝가리, 호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캐나다, 벨기에, 베네수엘라,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체코 ※ 세인트루시아는 특정 예산 시나리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었음.	스페인, 러시아

- (가봉,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장 높은 예산 상한선을 지지함.
- (스페인) 집행이사회가 동 사안에 대해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제안된 수정(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아울러, 금번 총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강조함.
- (호주) Zero Nominal Growth 기반 예산안을 지지함.
- (파라과이) 사무국이 준비한 결정문을 지지함.
- (수단)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불가리아) 사무국이 준비한 가장 높은 예산 상한선 시나리오를 지지함. 예산은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구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임. 아프리카 우선, 청년의 역할 강화 지원 등 유네스코의 고유 역할 수행에 있어 충분한 예산은 필수적임.

- (가나)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핀란드) 534.6백만 미불 시나리오는 임의적으로 정한 수치가 아니라, 정교한 고려하에 도출된 예산임.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베트남) 207차 집행이사회 계기 다른 이사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알바니아)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슬로베니아) Zero Real Growth 기반 예산안을 지지하는바,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 채택에 동의함.
- (방글라데시)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바,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니제르)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세네갈) 정규 분담금 증액은 세네갈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기구의 제 기능 수행을 위해서 다른 회원국도 가장 높은 예산 상한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 (짐바브웨)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지지함.
- (요르단) 현재의 가장 높은 예산상한 수정안을 지지함.
- (모로코)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를 전적으로 지지함. 아프리카 우선과 청년 부문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할 것을 제안한 불가리아의 발언을 지지함.
- (모리타니) 가장 높은 예산안을 지지함.
- (파키스탄) Zero Nominal Growth에 기반한 518백만 미불 예산안을 지지함.
- (엘살바도르) 호주, 헝가리 등 회원국의 입장 역시 이해함.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협의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지함.
- (세르비아) 현재의 예산 수정안을 지지함.
- (그리스) 현재의 예산 수정안을 지지함.
- (인도네시아) Zero Nominal Growth 옵션을 지지함. 정부 간 협의 포맷을 통해 예산 시나리오가 채택되기를 희망함.
- (알제리) 현재의 예산 수정안을 지지함.
- (튀니지) 유네스코의 아프리카 우선 전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예산 수정안을 지지함.
- (캐나다) Zero Nominal Growth 시나리오를 지지하지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과 같이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 도출을 저해할 의사가 없으며, 합의에 의한 결정에 따를 것임.

- (나이지리아)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
 - (노르웨이) 현재의 예산 수정안을 지지함.
 - (대한민국) 한국은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을 다시 한 번 표명함.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네스코를 통한 공동의 프로젝트는 모든 회원국과 국제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것이라 믿음.
 - (포르투갈) 현재의 예산 수정안을 지지함.
 - (러시아) Zero Nominal Growth 시나리오(518백만 미불)를 지지함. 사업비 잔액(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네스코가 더욱 엄정한 예산 집행을 해나갈 것을 지지함. 사업비 잔액을 회원국에 반납할 것을 제안함.
 - (이탈리아)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
 - (토고) 현재의 예산 수정안을 지지함.
 - (벨기에) ZNG가 모든 UN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되었든 컨센서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세인트루시아) 컨센서스에 의한 예산 시나리오 채택을 지지함.
 - (베네수엘라) 현재의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하지 않음. 다자주의 협의에 기반하여 컨센서스를 통해 예산 시나리오가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람.
 - (모나코)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
 - (우즈베키스탄)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
 - (적도기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껴짐.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
 - (카메룬)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를 지지함.
 - (독일) 독일 재정부가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 지지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함.
- ※ 결정문 채택 전 헝가리는 기존 수정 결정문 내 para 2에 동의하지 않음을 언급함. 반면, 다수의 회원국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장의 구두 보고(oral report) 내 “헝가리는 ZNG를 지지하였으나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를 존중하였음”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함.
- ※ 베네수엘라, 호주, 칠레는 의장 보고 내 자국이 UN시스템의 ZNG를 강하게 지지하였으나 ‘컨센서스’를 존중하였음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함.
- ※ 도미니카 공화국, 체코 역시 UN시스템의 황금률인 ZNG를 지지한다는 점을 의장 보고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됨.

2 교육(ED) 분과위원회

● 회의 기간 및 장소

- 2019.11.13(수) 15:00-18:00 (고위급회의)
2019.11.14(목)~15(금) 10:00-13:00; 15:00-18:00 / Room II
2019.11.16 (토) 10:00-13:00; 15:00-16:30(연장 진행) / Room II

● 요지

- 교육위원회는 △2020-2021년 사업 및 예산안(40 C/5),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협약(안), △SDG4-교육2030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국제/지역 차원의 조정 및 지원, △유네스코 문해 전략안(2019-2025), △201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이행 체계,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국제표준분류(ISCED-T,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for Teacher training programmes) 개발, △아랍 점령지역 교육, 문화기관 관련 39 C/R55 이행 현황,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의 미래 등 17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문을 채택함.
- 유네스코 2020-2021년 교육 분야 사업 및 예산안(40 C/5)은, 3개 전략목표, 2개 주요 활동, 10개 기대성과 등의 내용으로, 446,731천 미불(전체 유네스코 예산안 대비 32.6%)의 예산안을 채택함.
-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the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이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와 함께 채택됨.
- SDG4-교육 2030 이행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을 상기하면서 유네스코의 글로벌 교육 의제에 대한 조정과 리더십 강화에 대한 회원국의 요청이 많았으며, 회원국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해 증진을 위한 ‘문해 전략(UNESCO Strategy for Youth and Adult Literacy(2020-2025))’과 SDGs 이행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기여한다는 목표의 ‘2019년 이후 ESD 이행 체계(ESD for 2030)’가 채택됨.
- 교원 양성과 연수 프로그램의 국제표준분류(ISCED-T) 개발 의제가 채택되어, 210차 집행이사회(2020년 가을 예정) 중간보고서, 41차 총회(2021년 가을 예정) 보고서(초안) 제출 일정으로 개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아랍 점령지역 교육, 문화기관 관련 39 C/R55 이행 현황은 회원국의 발언·이

견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함.

-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의 미래 의제는 △지역그룹별 각 3명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IBE 임무 재설정에 관한 제안서 마련, △교육과정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 마련, △두 제안서 내용의 협의 및 구체화 등의 내용으로 결정문이 채택됨.
- 한편 교육위원회 개최 전날인 2019년 11월 13일(수)에 열린 고등교육 장관급 회의(Higher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은, 30여개국의 교육부처 장·차관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교육 사무총장보, 고등교육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고등교육의 포용성과 이동성에 관한 각국 정책 소개와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안)을 지지하는 내용 등으로 진행됨.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14일(목)

- 개회
- 의제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의제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의제 4.2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 의제 8.1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및 문안 채택
- 의제 5.9 201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이행 프레임워크
- 의제 5.11 유네스코 청년 및 성인 문해 전략(2020-2025)
- 의제 5.18 SDG 4 - 교육 2030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조정 및 지원
- 의제 5.3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관련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구 현장의 기여

11월 15일(금)

- 의제 5.9 / 5.11 / 5.18 / 5.36 (계속)
- 의제 5.27 교사 정책 대화를 위한 국제 유형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 유형 관련 국제기준(ISCED-T) 개발
- 의제 9.1 2015년 성인 학습 및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의제 9.2 2015년 기술직업교육(TVET)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의제 9.3 1993년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 인증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의제 5.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39C/Resolution 55 이행
- 의제 5.34 사이버따돌림 포함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방지를 위한 국제 기념일 선포
- 의제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 의제 5.10 국제교육국(IBE)의 미래
- 의제 5.6 교육 관련 카테고리1센터 관리

11월 16일(토)

- 의제 5.10 / 5.6 (계속)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Shafqat Mahmood (파키스탄)
- 부의장 : H.E. Mr. Gbovadeh G. Gbilila (라이베리아)
- H.E. Ms. Fawziya Al Khater (카타르)
- 라포터 : H.E. Ms. Kasan Troupe (자메이카)

● **상세 내용**

의제번호	3.1 (40C/11, 40C/INF.18)
의제제목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Prepar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 (41C/4)

- 사무국(교육 사무총장보, BSP 담당자) 측에서 이전 중기전략과의 차이점, 금번 중기전략에서 고려/반영한 유관 분야 최근 국제사회 동향 및 도전과제 소개
- 회원국들의 대다수가 사무국의 차기 중기전략에 대해 찬성 및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특히 “유네스코의 리더십/조정/자문 역할 강화, 유엔 기구 및 관련 이행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난민/이주민 등 소외계층 포용, SDG 4.7 관련 교육목표(ESD, GCED) 중요, AI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교사 역량강화” 등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개진됨. 그 외에도 SDG4 달성에 있어 유네스코통계연구소(UIS) 및 세계교육보고서(GEM)의 중요성(독일, 벨기에, 영

국, 오스트리아 등), 유네스코 석좌 등 고등교육 체계의 적극적인 활용(프랑스), 평생교육(독일),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독일, 폴란드 등), TVET(독일, 네덜란드 등), 예술과/언론인/과학자들의 보호 및 권위 신장(덴마크), 인간성 개발(humanity development)에 있어 교육의 역할 강조(중국), 교육운영정보체계(EMIS) 활용(부탄) 등이 언급됨.

- 한국을 포함한 26개 회원국이 발언을 통해, 2030년까지의 SDG4 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상기하고, SDG4 이행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 유네스코의 리더십과 조정 역할 강화, 난민·이주민 등 소외계층 포용, 양성 평등(소녀교육 등)과 아프리카 우선순위의 지속 추진, 교원 역량 강화, SDG4 이행 점검 체계와 양질의 데이터 확보 등을 강조함.
- 한국 대표단은 유네스코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SDG4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모니터링과 지표 점검 체계 구축 측면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2021년 ESD-GCED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이 SDG4.7 점검 및 이행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여 언급함.
- 북한은 국제 교육의 날, AI 등 첨단기술, 유아교육개도국 내 교사 역량강화에 대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요청함. 아울러 일본 측에는 일본 내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함.
-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유네스코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강력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함.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네스코가 “전략적 사고 수립”(우선순위 설정, 결과 예측, 파트너십 구축 등)에 있어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힘.

의제번호	3.2 (40C/7)
의제제목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2-2025 (41 C/5)

- SO2 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 진행
- 프랑스, 부탄, 러시아 등은 GCED와 관련해 “윤리적/도덕적 가치(ethical and moral values)”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총회 의장은 기존 문서에 있는 표현인 “universal values”가 모든 가치를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함.

- “similarity” → “cross-cutting nature”로 변경

의제번호	4.2 (40C/5 and Corrigena, 40C/6 and Add., 40C/8)
의제제목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0-2021 (40 C/5) Part II. A : Major Programme I - Education

- 이견 없이 채택

의제번호	8.1 (40C/31)
의제제목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및 문안 채택 Final Progress report and draft text of the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 본 협약은 20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발효 예정
- 전면 재검토(노르웨이) 또는 일부 수정(일본)을 요청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포함해 대다수의 회원국이 찬성했고, 일부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후 협약을 최종 채택함. 남아공을 비롯해 총 30개국, 3개 옵저버가 협약 채택을 지지했으며, 협약 제정과정에서 유네스코가 회원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약 채택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함. 지지 발언국의 경우 서유럽 및 미주 지역 국가들의 발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북한은 포용성 증진의 측면에서 협약 채택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 본 협약의 채택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자 공공재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서, 다수의 각국 대표들이 언급한 바, 교육의 포용성, 학문적 이동성,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난민들의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를 통해 이른바 교육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측면에서 협약 채택에 대해 유네스코 사무국과 회원국 모두 큰 성과로서 환영함.
- 한국 대표단은 지지 발언과 함께 한-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아태지역협약 지역위원회 개최,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KARIC) 개소 등의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일본은 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협약 제9조제2항(자격인정 관련 정보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을 언급함.
- 결정문은 전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로 이견 없이 채택함.

의제번호	5.9 (40C/23)
의제제목	2019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이행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beyond 2019

- 2020년 ESD 국제회의 주최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하기 사항을 추가한 수정안 최종 채택

5. Express its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Germany for its support and generous contribution to host the International launch event for the ESD for 2030 framework in June in Berlin.

의제번호	5.11 (40C/25)
의제제목	유네스코 청년 및 성인 문해 전략(2020-2025) UNESCO Strategy for Literacy (2019-2025)

- 원안(서문 내 Paragraph 11)에 하기 두 단락 내용을 추가하고, 의제 명칭에 “청년”(youth)을 추가한 후 결의안 최종 채택

▶ *Recognizing literacy as a continuum of learning and proficiency in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as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to identify, understand, interpret, create, communicate and compute, using printed and written materials including on-line, as well as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in an increasingly technological and information rich environment.*

▶ *Further recognizing that literacy is a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 building block for achieving human right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a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의제번호	5.18 (40C/61)
의제제목	SDG 4 - 교육 2030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조정 및 지원 UNESCO's global/regional coordin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 4 - Education 2030

- 교육 사무총장보는 SDG4-교육2030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했지만, 다수의 회원국들이 SDG4-교육2030을 지지하고 관련 이행의 주도 기구로서 유네스코의 조정 역할 및 노력을 치하함.
- 아프리카의 역내 협력의 성과와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명시한 수정안을 케냐가 발의하고, 부르키나파소, 기니,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케냐 안을 적극 지지해 최종 결의문에 반영/채택
- 한국 대표단은 의제 5.18 관련 SDG4-교육 2030 이행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지표 점검체계 구축에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의제 5.9는 국내에서의 ESD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소개하면서 향후 ESD 실행에 있어서 ESD-GCED 상호보완적 협력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방향 제시 필요성을 언급함.
- 수정사항 : Paragraph 24 중 1. 문구 추가(빨간색 표기), 4. 신설, 6. 수정
 1.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Director-General for her efforts concerning the coordination of and support for SDG 4 - Education 2030,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regional meeting on SDG 4 - Education 2030, the convening of the 2018 Global Education Meeting and contribution to the 2019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4. *Stresses the need for UNESCO, in its mandated role to lead and coordinate the SDG 4-Education 2030 Agenda, to follow up the outcomes of the regional meetings, inter alia notably the first Pan-African High-Level Conference on Education (April 18) in line with global priority Africa.*
 6.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the Executive Board at the 29th session on UNESCO's lead role in global, inter-sectoral, and regional coordination of and support for SDG 4-Education 2030, notably the first Pan-African High-Level Conference on Education (April 18) and further prioritize its role.*
- 기타 주요 발언내용
 - 네덜란드 : 중복 모니터링 없어야 함. 다른 유엔기관과 협력 중요. ASPnet을 통해 SDG 이행.
 - 일본 : SDG4.5의 포용성 및 형평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일 외국인

문제 접근함(전날 북한대표의 발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말리: 양질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양질의 교사 수 확대가 시급
- 교황청(오퍼버): SDG 4 달성을 위해 교육 공급자로서 가톨릭교회의 역할에 유의하고 있음. 유네스코 회원국과 협력을 희망함.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
- EI(오퍼버): 각국은 GDP 대비 교육 투자를 10% 수준까지 늘려야 함. 교육세 등 조세 정책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교사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양질의 교사 배출, 국제적인 교수 표준 수립 필요

의제번호	5.36 (40C/80)
의제제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관련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구 헌장의 기여
	Contribution of the Earth Charter to UNESCO activities concerning ESD

- 이견 없이 채택

의제번호	5.27 (40C/69)
의제제목	교사 정책 대화를 위한 국제 유형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 유형 관련 국제기준 (ISCED-T) 개발
	Towards a global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teacher policy dialogue - Develop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for teacher training programmes, ISCED-T

- 논의 후 원안대로 채택

- 에스토니아의 경우, 글로벌 범주(classification)에 회의적이며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의제번호	9.1 (40C/33)
의제제목	2015년 성인 학습 및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 나이지리아는 비형식교육 부문에서 국가 성인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림. 네덜란드는 평생교육이 사회의 포용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부르키나 파소는 성인 문해가 자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임을 언급함.

- 논의 후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 채택됨.

의제번호	9.2 (40C/34)
의제제목	2015년 기술직업교육(TVET)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 대다수 회원국은 TVET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국 내 관련 정책을 소개함.
- 논의 후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 채택됨.

의제번호	9.3 (40C/35)
의제제목	2015년 기술직업교육(TVET)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3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 앙골라가 개도국의 재정적 어려움, 기술적 협력을 고려해 사무총장에게 개도국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기와 같이 문단 6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엘살바도르의 지지 발언 후 수정안 채택
- 일부 수정 후 채택(Paragraph 9 내 하기 내용 추가)

6. Calls on the Director-General to support the developing States on their national and regional initiatives to connect higher education with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의제번호	5.3 (40C/17)
의제제목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39C/Resolution 55 이행
	Implementation of 39 C/Resolution 55 concerning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 이견 없이 채택

의제번호	5.34 (40C/78)
의제제목	사이버따돌림 포함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방지를 위한 국제 기념일 선포
	Proclamation of an International day against 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 including cyberbullying

- 이견 없이 채택

의제번호	5.4 (40C/18.I to XIII)
의제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가나, 세이셸 및 프랑스 내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관련 사안으로, 이견 없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들이 사무국과 회원국들에게 사의 표명.

※ 가나, 교육 기획 및 행정 연구소(IEPA,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and Administration), 프랑스, 기후교육사무소(OCE, Office for Climate Education), 세이셸, 유아발달연구소(IECD,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의제번호	5.10 (40C/24)
의제제목	국제교육국(IBE)의 미래 Future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 사무국이 상기 의제 2개에 대한 논의를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으며, 의제별 결의안을 상기 순서대로 채택함. 특히 5.10번 의제의 경우 금번 40차 유네스코 총회 교육 분과 의제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자, 당사국들 간에 참여하게 의견이 대립하면서 분과회의가 11월 16일 오후까지 연장되기도 함.
- 사무국은 IBE의 미래 문제에 있어 재정 문제만큼이나 확실한 임무(mandate)의 부재가 핵심 원인인 만큼, IBE의 새로운 임무(new mandate)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advisory group)을 수립해 운영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시함.
- 회원국들은 개도국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 IBE의 가치에 주목하고, 유네스코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IBE의 상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사무국 측이 조속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함.
- 현 IBE 주최국인 스위스는 제네바 내 IBE 잔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주최 희망국인 중국은 IBE가 모든 회원국의 자산인 만큼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존의 옵션 중에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함.

- 이후 진행된 결의안 수정 작업에서 중국과 유럽 중심(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의 회원국 다수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육 분과회의의 마지막날 까지 매우 지난한 논의 과정이 이어짐.
- 논란의 최대 쟁점은 IBE 거취 장소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기 단락으로, 중국은 “제네바”가 명기된 부분 다음에 중국 등 유치 희망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단순한 역사 및 배경에 대한 내용 안에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세부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반대함. 이에 대해 중국은 사무국 측이 스위스 잔류를 우회적으로 유도하면서 타 국가들에게 유치 의사를 물어보는 등 운영상의 편파성 및 미숙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토고 또한 IBE와 관련해 제기된 “재정 위기”와 “임무의 개편” 문제 가운데 후자가 우선 시되어야 했다면, 유치국을 모색하기 전에 임무에 대한 점검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으며 사무국 측의 조정 절차에 대해 지적하기도 함.

"Takes note of the roadmap for the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in Geneva [] under a renewed mandate"

-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타 회원국들의 불만 또한 함께 고조됨. 특히 이집트 측은 중국의 불필요한 “방종”(indulgence)으로 인해 안전 토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무국 측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사무국 측은 15일에 주요 당사자들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회의 진행을 가속화하고자 했으나, 다음 날인 16일 오전까지도 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스웨덴 등 몇몇 국가에서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집트 측은 이렇게 작은 사안까지 투표에 부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반대함. 중국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회원국들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투표를 하게 된다면 해당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결국 사무국은 본 건에 대한 결정을 위해 20여 분간 휴정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별도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짐.
- 상기 별도 협의과정을 거친 후, 중국은 결국 다수 회원국들의 의견대로 기존 결의안 내용(“제네바”만 명기)을 유지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타 단락 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함. 이후 △지역그룹별 각 3명으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IBE 임무 재설정에 관한 제안서 마련, △회원국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 마련, △두 제안 내용의 협의 및 구체화, △IBE 운영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이사회에 권한 위임 등의 내용으로 수정 결정문을 채택하여 마무리함.

Having examined document 40 C/24,

1. *Takes note* of the roadmap for the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in Geneva under a renewed mandate.
2.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made up of up to three members from each electoral group to establish the reorganization of IBE, in order to address the current issues of the institute, and to ensure that the renewed mandate will focus on the interlinkages between education and the oth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cluding integrated curriculum for Member States and the related sectors.*
3. *Also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submit to the Executive Board a consolidated proposal, in consultation with all parties concerned, for strengthening of curriculum activities/matters, including their relevant funding at UNESCO,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4. *Emphasizing that the two proposals should be elaborated in a consultative and consistent manner.*
5. *Decides to delegate authority to the Executive Board to decide provisionally and on/regarding (at) non-budgetary aspects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including by reviewing its Statutes as well as any other necessary transitional measure, to be submitted to the 41s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r final endorsement.*

의제번호	5.6 (40C/20)
의제제목	교육 관련 카테고리1센터 관리
	Management of the education-related category 1 institutes

- 2018-2019년도 카테고리 1 센터별 사업 이행현황 보고(IITE, IBE, IIEP, UIL, IESALC, IICBA, MGIEP / UIS 추가 보고)
- 이견 없이 채택

● 관찰 및 평가

- 교육위원회는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의 미래 의제를 제외하고는 큰 쟁점 없이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은 SDG4-교육 2030 이행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

한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22-2029 중기전략안 준비와 2020-2021 사업·예산 이행 및 SDG4 이행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선도적인 조정과 지원 역할을 강조하였음.

-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채택되었으며, 고등교육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도 동 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비준 절차를 바로 이행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우리 측에서도 동 협약에 대한 국내 비준 준비 등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2-2029 중기전략안 및 2022-2025 사업·예산안 준비와 관련하여, 동 기간은 SDG4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국내 SDG4 이행 체계와의 연계,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등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국제표준분류(ISCED-T)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적인 교육 통계 기반과 질적으로 우수한 교원 양성·연수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 주도적인 참여 필요성이 있음.

3 자연과학(SC) 분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18일(월)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19일(화)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요지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IHP, MAB, IGGP가 SDGs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감하면서 회원국은 2030 의제와 긴밀히 연계된 40 C/5를 평가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 41 C/4, 5에도 지지를 표명함
- 오픈 사이언스 규범 제정 관련, 회원국은 오픈 사이언스가 과학 분야 국가 간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문위원회에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41차 등 가능한 빠른 회기에 사무총장에게 규범 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IOC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에 대한 IOC의 주도적 활동을 요청함
-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를 비롯한 자연과학분야 5개 센터 설립을 승인하여 과학 분야의 카테고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논의 의제 및 일정

2019.11.18(월)

-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 5.13 국제수학의날 선포
- 5.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 선포
- 5.33 2022년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 해 선포
- 5.19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IHP) 국제이사회 규정 개정
- 5.20 오픈 사이언스 권고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법적 측면

2019.11.19(화)

- 4.2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Stephen Simukanga (잠비아)
- 부의장 : H.E. Ms. Liette Vasseur (캐나다)
H.E. Ms. Claudine Le Marant de Kerdaniel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H.E. Mr. Dendev Badarch (몽골리아)
H.E. Mr. Mouñ Hamzé (레바논)
- 보고관 : Group II

● 상세내용

의제번호	5.4 (40C/18.1 to XIII)
의제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의장은 과학 분과에서는 5개 설립 제안서를 검토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집행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토론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여 5개 센터 모두 설립을 승인하는(approve) 결의안을 수정 없이 채택함
- 서중앙아시아지진위험관리회복지역교육연구센터(이란 테헤란 국제지진공학지진학연구소(IIEES) 내)
-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GCIDA)(대한민국 제주도)
- 국제물시스템역학학제간연구센터(ICIREWARD)(프랑스 몽펠리에)
- 위생기술지역실험센터(CERTS)(우르과이 카넬로네스)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사회변화에 대한 역량강화국제센터(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 우리 대표(김동기 대사)는 센터 설립을 지원해준 사무국과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이 센터가 설립되는 제주도는 4개 국제지정지역을 보유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적절한 사례라면서 센터가 국제지정지역 관리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인 2020년에 센터를 개원하려고 노력할 것임을 피력함
- 다른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해당 회원국이 감사발언을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프랑스)과 SDGs 달성(우르과이)에 기여를 강조하며 통합적인 접근(프랑스)과 역량강화(우르과이), 센터 활동을 통한 유네스코 가시성 제고(아이슬란드) 등을 언급함

의제번호	5.13 (40C/27)
의제제목	국제 수학의 날 선포 Proclamation of an international day of mathematics

- 의장이 논의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결의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나, 이후 토고가 다시 결의안에 수학 분야 역량 형성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이행 추가를 제안하였고, 예산 부담에 대한 의장 질의에 비정규예산을 사용할 것임을 부연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아공이 역량 ‘강화’로 재수정 제안하고, UAE가 개도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원국으로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함
- 2.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
 - (a) promote the celebr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of Mathematics;
 - (b) encourage Member States,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universities, research centr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chools and other local stakehold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vent in a manner that each considers most appropriate and without any financial implications for UNESCO’s regular budget;
 - (c) take the opportunity of the International Day of Mathematics to launch new and innovative projects in order to build strengthen (남아공 수정제안) capacities in the field of mathematics in developing-countries(UAE) Member States(... 제안) 토고 제안

의제번호	5.21 (40C/64)
의제제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공학의 날 선포 Proclamation of a world engineering da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네덜란드의 제안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네덜란드는 결의안의 배경 6번째 단락에 AI는 공학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프랑스, 벨기에, 수단, 캐나다, 모잠비크, 가나 등은 AI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결의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재수정안을 제안하여 채택됨
- Also recognizing the commitment of UNESCO and its Member States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추가: 가나) it will contribute to interdisciplinary and (추가: 네덜란드) human (추가: 벨기에) sciences ~~for and with society and also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삭제: 가나)~~ to advance the SDGs(네덜란드), and recognize develop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네덜란드 제안, 마지막에 삭제)

의제번호	5.33 (40C/76)
의제제목	2022년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 해 선포 Proclamation of an International Year of Basic Sciences for Development in 2022

- 의장은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토론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프랑스와 가나는 이전 집행이사회에서 발전 앞에 '지속가능(sustainable)'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여 추가함
- 러시아는 75차 총회 삭제를 제안하고, 프랑스는 이에 대해 '75 또는 76차'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여 러시아가 수용하였으며, UAE는 아프리카, 아시아, SIDS 만 왜 명시되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사무국(자연과학 사무총장보)는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 아제르바이잔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신과 극단주의에 대한대응을 강조하였으나, 이란, 케냐, 보츠와나, 중국 등은 불필요하다며 뒷부분은 삭제를 제안하여 이를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 해'로 수정하여 결의안 채택함
- Also considering the high value for humankind of basic sciences, and that enhanced global awareness of, and increased education in, the basic sciences is vital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both men and women **people** (앙골라),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Asia and the Pacific.~~(UAE질의, 사무국 삭제)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basic scienc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rational thinking, **innovation(중국 추가)** and knowledge-based society ~~and their impeding irrationalism in the foundation for all types of fanaticism and radicalism.~~(아제르 추가: 마지막에) (이란, 케냐 삭제 제안)

2.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support all efforts lead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proclaim 2022 as international year of basic sciences for **sustainable(추가 제안 : 프랑스, 가나)** development, **including a broader participation of women(프랑스 추가).**

3. Recommends th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t its 75th session~~ (러시아 삭제 제안) ~~at its 75th or 76th session~~(프랑스 추가제안) adopt a resolution declaring 2022 as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basic sciences for sustainable (추가 제안: 프랑스, 가나) development.

의제번호	5.19 (40C/62 and Corr.)
의제제목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국제이사회 규정 개정
	Revision of the Statutes of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 의장은 결의안에 문서 번호가 수정되었음을 소개하고, 이어 모로코가 논의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원국 발언 이후에 문서 번호를 수정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함
- Having examined document 40 C/62 and Corr. And 40 C/LEG/15,
- 1. Approves the amendments to the Statutes of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IGC) set out in the Annex to document 40C/62: **this resolution.**
- 다수의 회원국은 규정 개정안을 지지하면서, 명칭 변경(국제 → 정부간 : international → intergovernmental)을 환영하고, 유엔 산하의 유일한 정부간 물 기구로서 IHP의 활동에 기대를 표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은 유네스코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프랑스는 정부간 기구들과 협력에 더해 남남, 남북남 협력을 강조하였고, 이집트는 정부간 이사회로서 WMO와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고, 노르웨이, 러시아, 잠비아 등은 개정안을 지지하면서 정부간기구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터키는 거버넌스 논의에 따른 규정 개정이 이사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름 변경이 유엔 시스템 안에서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독일, 수단, 인도네시아, 케냐, 중국, 이란, 나미비아, 벨기에,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등이 지지발언을 하였고, 슬로베니아는 정부간 이사회로 명칭 변경이 IHP의 '과학적 성격'을 침해할 우려를 표했으나, 개정에 대해서는 지지함
- 사무국(자연과학 사무총장보)은 회원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회원국과 협력

하여 앞으로도 활동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규정 개정에 따라 11.28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장단을 선출할 것임을 안내함

의제번호	5.20 (40C/63 and Add.)
의제제목	Technical, financial and legal aspects of the desirability of a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 우리 측을 포함한 49개 회원국과 2개의 옵서버가 발언을 하여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권고 준비 일정과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 논의를 주도해 온 포르투갈을 비롯하여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영국, 중국, UAE 등 여러 회원국들은 오픈 사이언스가 과학발전 및 정책 결정, SDGs 달성, 국제협력 증진 등에 기여함을 언급하고, 이에 더해 네덜란드와 독일, 캐나다는 2017년 개정된 과학자 권고에 이은 유네스코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지하며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와의 협력을 제안
- 이탈리아, 이집트, 브라질, 라트비아, 우간다, 케냐 등은 논의 과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세인트루시아는 자문기구 구성 관련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함
-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앙골라 등은우리 - 측은 오픈 사이언스 권고가 남북, 남남, 삼자 협력을 촉진하고 과학 연구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유네스코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권고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한국의 적극적 참여 의사 표명
- 결의안 채택 시 권고 채택 시기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을 논의한 후, 제41차 총회(2021년) 채택을 확실히 명시하지 않고, 자문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할 후에 해당 결의안을 채택함.
- 러시아, 쿠바, 인도, 중국 등이 자문기구에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개작업반(open-ended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터키가 현재의 자문위원회 구성안(회원국 6명 및 외부 9명/총 15명)을 지역그룹별 5명 및 학계 10명으로 총 40명으로 늘리고 민간부문과 사업부문은 삭제할 것을 제안
- 슬로베니아가 자문위원회 숫자가 늘어나면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지역그룹별 3

명, 과학계 12명 등 총 30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 포르투갈, 우간다,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이 지지하고, 러시아가 그 구성을 그룹별 4명, 과학계 6명 등 총 30명으로 조정 제안하여 최종 채택

- 권고의 제41차 총회(2021년) 채택 일정과 관련, 러시아가 일정 명시를 반대하고 해당 문구 삭제를 요청하자 포르투갈은 지난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임을 지적하고 프랑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영국, 이집트, 캐나다 등이 지지함. 중국이 절충안으로 ‘가장 가까운 회기(at the earliest possible session)’로서 제41차 총회를 언급하는 것을 제안, 최종 채택

의제번호	4.2 (40C/5 and Corrigena, 40C/6 and Add., 40C/8)
의제제목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0-2021

- 우리 측을 포함 25개국이 발언을 통해 자연과학 분야 국제수문학사업(IHP),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세계지질공원사업(IGGP) 등 주요 사업이 SDGs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함.
- 우리 대표(김동기 대사)는 자연과학 분야 주요사업이 SDGs와 긴밀히 연계된 것을 환영하면서, 국제물안보센터(i-WSSM)를 통해 개도국 물안보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지정유산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금번 총회에서 승인된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GCIDA)를 통해 이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함.
- 러시아는 여성의 기초과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웨덴, 스트리아, 불가리아, 이집트 등은 양성평등, 청년, 아프리카, 군소도서국(SIDS) 등 유네스코 우선순위와 학제 간 협력을 지지, 캐나다는 원주민 협력을 추가 언급
- 독일, 캐나다, 엘살바도르, 수단 등은 유엔 내 유일한 물 관련 정부간기구로서 IHP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케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안보 사업을 지원해준 한국에 사의 표시
- MAB, IGGP 등의 지정제도 관련 프랑스, 그리스, 중국, 몽골, 폴란드 등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발전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자국 내 네트워크 활동과 지원사업 등을 소개

- 40C/5 원안대로 채택됨.

의제번호	3.1 (40C/11, 40C/INF.18) 3.2 (40C/7)
의제제목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3.2 2022-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3.1 Prepar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 (41C/4) 3.2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2-2025 (41C/5)

- 사무국은 기초과학 증진, 자연자원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자연과학 섹터의 전략적 방향을 소개하고, 41 C/5에서는 △기술격차 감소, △오픈 사이언스와 오픈 액세스 확대, △양성평등과 청년, 군소도서국(SIDS)에 대한 관심, △물 안보 확대, △재해 위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네스코 지정지역 관리 등 주요 사업내용을 언급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자연과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21개 회원국들이 발언을 통해 상기 이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유네스코의 적극적 활동을 주문함.
- 북한은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 감소, 과학기술혁신 향상, 과학 협력, 기술 이전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을 요청하면서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피력하고, 자국의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신청 현황을 공유

의제번호	3.1 (40C/11, 40C/INF.18) 3.2 (40C/7)
의제제목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IOC 3.2 2022-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IOC 3.1 Prepar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 (41C/4) 3.2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2-2025 (41C/5)

- 사무국은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과 SDGs 달성 등에 해양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인식 증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과 아프리카와 양성평등, 군소도서국(SIDS) 우선순위를 언급함.
- 여러 회원국들은 SDG 14 이행을 위한 IOC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엔 해양과학 10개년(2021-2030년)에 대한 IOC의 주도적 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국 대상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함.

의제번호	4.2 (40C/5 and Corrigena, 40C/6 and Add., 40C/8)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 IOC
의제제목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0-2021 - IOC

- IOC 사무총장보는 2020-2021 예산은 APX 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IOC 예산이 배분됨을 소개하고, 역량강화 및 아프리카와 성평등 우선순위를 소개함
- 케냐는 SDG 14 달성 및 유엔 해양과학 10년에서 IOC의 역할을 강조하고, 블루이코노미, IOC아프리카 활동을 언급함
-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과학 10년을 지지하면서 재정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언급하고, 프랑스는 IHP와 협력하여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캐나다는 유엔 해양과학 10년, 청년 참여 등을 언급
- 사무국(ADG/IOC)는 IOC는 사무국뿐 아니라 회원국의 참여로 이뤄져있다면서 회원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고, \$26,835,700 예산을 포함한 결의안 채택.

● 관찰 및 평가

- IHP, MAB, IOC 등 유네스코 정부간 사업의 SDGs 이행 기여에 대한 평가 및 관심이 높았고,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지정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으로 역할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함
-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회원국은 격차 해소, 혜택 공유의 입장에서 환영하고, 회원국 참여 기회 보장을 주장함
- 사무국의 활동을 유네스코 센터가 협력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우리 센터의 기여(물 센터 활동)를 케냐가 언급하였으며, 이번에 승인된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정지역 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이므로 기여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에 대해 회원국은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저개발국의 역량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4 인문사회과학(SHS) 분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20일(수)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21일(목)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요지

- 인문사회과학위원회는 △2020-2021년 사업 및 예산안(40 C/5), △2022-2029 중기전략(41 C/4) 초안 준비, △2022-2025 사업 및 예산안(41 C/5) 초안 준비,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법적 측면의 예비 연구 등 9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문을 채택함.
 - 유네스코 2020-2021년 인문사회 분야 사업 및 예산안(40 C/5) 관련, 1개 전략목표, 2개 주요 활동, 4개 기대성과 등의 내용으로, 69,115천 미불(전체 유네스코 예산안 대비 5%)의 예산안을 채택함.
 - 2022-2029 중기전략(41 C/4) 및 2022-2025 사업 및 예산안(41 C/5) 관련 양성평등과 아프리카 우선순위, 청년 참여 증진, 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스포츠 강화, 문명간 대화(실크로드) 촉진, 섹터간 연계 등을 강조하여 준비할 것을 논의함.
 -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권고문(안) 성안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고, 41차 유네스코 총회(2021년 가을 예정)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문(안)을 검토·채택하는 일정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아프리카 노예의 길 사업에 아프리카 및 중남미 회원국이 공동 지지국으로 참여하여 이 사업을 지속,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차기 중기전략 및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문화간 대화 증진을 위한 실크로드 사업을 강화하자는 회원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페인, 중국, 아제르바이잔, 몽골, 이란, 오만 등)의 요청이 많았음.
- ※ 북한은 중기전략(의제 3.1) 논의 시 일본의 욱일기 사용이 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고, 일본은 AI 규범(의제 5.24) 논의 계기에 북한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일본은 올림픽 현장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논의 의제 및 일정

2019. 11. 20.(수)

- 개회
- 의제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의제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의제 4.2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 의제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 의제 5.15 유네스코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규정 개정
- 의제 5.24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규범설정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
- 의제 5.28 노레 경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저항, 자유, 유산
- 의제 5.31 세계 논리의 날 선포
- 의제 5.37 세계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인종혐오범죄 제거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s. Viviane Morales Hoyos (콜롬비아)
- 부의장 : H.E. Ms. Saeunn Stefansdottir (아이슬란드)
H.E. Mr. Shahin Mustafayev (아제르바이잔)
H.E. Mr. Abdel-Ella Sediqi (아프가니스탄)
H.E. Mr. Joel Ongoto (케냐)

- 상세내용

의제번호	4.2 (40C/5 and Corrigenda, 40C/6 and Add., 40C/8)
의제제목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0-2021 Part II.A : Major Programme III - Social and Human Sciences

- 2020-2021년 사업 및 예산안(40 C/5) 관련,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분야는 1개 전략목표* (Strategic Objective), 2개 주요 활동** (Main Line of Action), 4개 기대성과(Estimated Results) 등의 내용으로, 69,115천 미불(전체 유네스코 예산안 1,369,848천 미불 대비 5.0%)의 예산안을 채택함.

- * 포용적인 사회 발전 지원, 문화 화해를 위한 문화 간 대화 촉진, 윤리 원칙 증진
- ** ① 사회 통합과 공평 사회를 육성·달성하기 위해, 지식 활용과 권리와 윤리의 내재화,
② 문화 간 대화 장려, 평화·참여 사회를 위해 청년들의 역할 증진
- 한국을 포함한 19개 회원국이 발언을 통해, 청년, SDGs 이행, 양성평등, 인권,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인 사회, 불평등 해소 노력, 부문간 협력 등을 강조함.
- 한국 대표단은 포용성, 문화간 대화, 윤리적 원칙, 평화와 참여 등의 가치를 지지하면서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년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유엔 청년 2030 전략과 유네스코 청년 전략을 한국어로 번역, 배포하였음을 소개하고, 아태지역에 적절한 예산 배분을 요청함.
- 회원국의 발언에 대해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학제간 접근, 성평등과 아프리카 우선순위, 공통과제 등에 대한 회원국의 요청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설명하고, 교육сек터와 협력 등을 소개한 후, 코트디부아르와 우간다가 제출한 수정제안을 논의한 후 결의안 채택
- 40 C/8 para 5 : 코트디부아르의 제안을 사무총장이 표현을 수정한 안을 재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폭넓은 극단주의를 반영하기 위해 'violent'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영국,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원안을 지지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됨

5. *Draft resolution 40 C/DR.1 (Côte d'Ivoire) proposes to amend paragraph (i), strategic objective 6, by including a new sub-paragraph after the second that reads as follows : (ii) [...]*

-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evention of violent extreme and radicalization through the promotion of tolerance, intercultural and interreligious dialogue, to ensure better ownership of a culture of peace* : (코트디부아르 안을 사무국 수정)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ight against extremism, radicalization and stigmatization of cultural and religious identities for a better ownership of a culture of peace (코트디부아르 원안)

- 우간다가 제출한 2개의 수정안은 적절하지 않아서 사무총장이 반영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여 수정 없이 원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5.15 (40C/57)
의제제목	유네스코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E) 규정 개정
	Revision of the Statue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CIGEPE)

- 의장은 법률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임을 설명하였고, 우간다는 개정안 준비 과정에 대해 질의하였고,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29개 회원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준비하였다고 답하였고, 피지는 포괄적인 절차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장의 제안에 따라 전체 결의안을 수정 없이 채택함
-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및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ICM,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자문위원으로 참여 가능

의제번호	5.31 (40C/74)
의제제목	세계 논리의 날 선포
	Proclamation of a world logic day

- 의장이 논의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간다는 용어에 대해 질의하여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World Day'는 유네스코 내에서 기념하는 날이라고 설명하였고, 피지는 지정일이 너무 많아져서 365일 전부 기념일이 지정될 지경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장의 제안에 따라 전체 결의안을 채택함
- 1월 14일이 세계 논리의 날로 지정 됨.

의제번호	5.4 (40C/18.X)
의제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의장은 인문사회과학분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대화와 대화와 평화를 위한 지역 센터(RCDP, Regional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 in Saudi Arabia)를 검토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토론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여 결정문안을 수정 없이 채택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지역의 첫 센터로서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겠다는 감사 발언을 함

의제번호	5.37 (40C/81)
의제제목	세계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인종혐오범죄 제거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acial hatred and racial hate crimes in the world

- 의장은 결정문안 전체를 바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몇몇 회원국이 동 의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후에 원안을 수정 없이 채택함
-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의 활동을 언급하였고, 우간다는 증오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스웨덴은 동 의제가 시의적절하고 매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독일은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유엔 협약을 언급하면서 유네스코의 1950-60년대의 활동을 환기함

의제번호	5.28 (40C/COM SHS/DR 1)
의제제목	노예의 길 프로젝트의 새로운 접근: 저항, 자유, 유산 New perspectives for the Slave Route Project: Resistance, Liberty, Heritage

- 의장은 논의 없이 베냉 등이 제출한 결정문 DR.1(일부 수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베냉은 결정문 초안에서 para 5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 para 8(수정된 para 7)에 (iv)를 추가하여 이 사업에 대한 가장 적절한 명칭을 41차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설명하였고,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동 제안을 환영하며, 노예의 길 사업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활성화되고 기억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함
- 베냉 등이 제출한 결정문 수정안을 채택한 후 UAE, 캐나다, 베냉, 피지,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브라질 등이 지지를 포함

의제번호	3.1 (40C/11)
의제제목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Present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41 C/4)

의제번호	3.2 (40C/7)
의제제목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Present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2-2025(41 C/5)

- 사무국(전략기획국장)에서는 41 C/4와 C/5 준비 절차를 설명하고 이어서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에서는 중기전략과 사업계획 방향을 설명함
- 전략기획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중기전략과 사업 및 예산안 준비 로드맵을 채택하면, 이에 따라 2020년 2-5월에 사무총장이 회원국, 국가위원회, NGO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국가위원회 총회(2020.5, 스위스 루가노), 정부간이사회(IOC, MAB 등) 회의 등의 계기를 활용할 것임을 부연. 2020 봄 집행이사회에서 전략목표를 평가하고, 가을 집행이사회에 중기전략과 사업 및 예산안 초안을 검토하게 됨.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부와 협의한 내용은 40 C/INF.18과 C/7 참조. 빈곤과 불평등, 성평등, 평화와 포괄적인 사회, 교육과 과학연구, 기후변화, 기술혁명과 AI 출현,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고, 신속한 이행, 집중, 학제간 접근, 아프리카와 성평등 우선 지속, 소도서개도국과 청년, 지역과 국가 차원 활동 집중,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이 제시됨.
-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는 불평등 심화, 첨단기술 등장, 기후변화, 청년 등의 과제 속에서 SDG 10(불평등 감소), 16(평화, 정의, 제도), 11(기후변화)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정책 반영 및 역량강화에 노력, 스포츠, 인문학, 문화간 대화 등을 언급하고, 부문간·다자간 협력 및 청년과 도시 활동을 강조함
- 발언한 29개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포용적이고 인본적 접근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략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성평등과 아프리카 우선순위, 청년 참여, 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스포츠 강화, 문명간 대화 촉진, 섹터간 연계 등을 강조하여 발언함.
- 한국 대표단은 학제간 접근을 평가하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유네스코 석좌와 카2 센터 등과 협력하여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 북한은 폭력, 기후변화, 난민 등의 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구축,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하고 언급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에 대한 교육 필요, 도쿄 올림픽에 일본의 욱일기 사용은 스포츠 정신에 적절하지 않음을 언급

- 옵서버로 교황청은 지구적 과제 해결에 여전히 할 일이 많음을 언급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것을 요청
-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실크로드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젊은 연구자 지원에 중국이 재정을 지원했음을 언급하고, 자연과학부문과 통합 제안(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ICSU(국제과학협회)와 ISSC(국제사회과학협회)는 2018년에 통합되었지만 CIPSH(국제철학인문학협의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참고로 언급하면서, 과학과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1974 채택, 2017 개정), 캐리비안에서 MOST 사업을 IHP, MAB, IOC 협력하는 사례 등 인문사회과학사업을 시작부터 자연과학부문과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2030 의제 이행 관련, 인권 향상을 위해 관련 기구와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회원국과 국가위원회의 참여와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청년과 이주, AI에 대한 관심에도 사의를 포함

의제번호	5.24 (40C/67)
의제제목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규범설정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 Preliminary study on a possible standard-setting instrument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동 의제 논의 전에 청년포럼에 참가한 청년 대표의 AI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 대표 5명이 참석, AI와 젠더 다양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AI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 AI의 한계도 알고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어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의제 문서에 포함된 예비 연구는 COMEST (과학기술윤리위원회)가 작업한 결과이며, 유네스코 역할을 논의하고 광범위한 협의를 요청한 집행이사회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과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다른 국제기구와 중복을 피하고 역량강화, 격차 감소, 보편성 등 유네스코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을 부연하고, 이번 총회에서 승인되면, 전문가 그룹 구성, 초안 작성, 지역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41차 총회에 초안을 제출하는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위한 일본, 네덜란드의 예산 지원과 한국, 러시아, 중국, 네덜란드 등의 협의회의 개최 등에 사의를 포함
- 44개 회원국이 발언하는 등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공통적으로 유네스코의 국제 규범 설정 역할에 대한 지지와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

하는 준비과정, 개도국의 관점에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특별한 주의, 인권 기반,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강조함.

- 한국 대표단은 학제간 광범위한 협의와 회원국, 시민사회, 민간 영역 등을 포함한 참여적 관점의 권고문(안) 준비를 강조하고, 아태지역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2020년 6월에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적인 협의회(consultation meeting)를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일본은 인권 기반 접근을 강조하면서 재정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소개하고, 스포츠에서도 AI를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도쿄올림픽은 올림픽현장에 따라 개최할 것임을 언급
- 옵서버로 교황청은 동 제안에 사의를 표하며 인권 침해에 관심을 요청함
- 사무국(ADG/SHS)은 모든 국가,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구적으로 조정된 접근을 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전문가그룹 참여를 위한 문서를 곧 열람할 예정이며, 분야,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됨을 안내함. 인권, 존엄성에 기반한 논의, 기술을 넘어선 인문사회학적 접근, 국가 정책 및 법제도에 반영, 오픈사이언스와 교육의 미래 등 회원국의 관심과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임을 강조하고, 정보커뮤니케이션 사무총장보(ADG/CI)는 유럽, 아프리카의 관련 기구들과 협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시너지를 기대하였고,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도 준비하고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것임을 부연함
- 사무국(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은 현재 결정문은 207차 집행이사회 전에 제출하여 관련 결정이 반영되지 않아 결정문안에 '207 EX/Decision 5.I.A'를 포함하는 기술적인 수정을 제안하였고, 회원국들은 결정문안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사무국 수정 제안을 반영한 결정문을 채택함

● 관찰 및 평가

- 회원국들은 학제간 성격 및 다자협력 기구로서 유네스코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불평등, 기후변화, AI 등 지구적 과제에 유네스코의 기여와 활동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AI 윤리 규범 제정 등 국제기준 마련에 유네스코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지함
- 북유럽 일부에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섹터의 통합을 주장하였으나 회원국이나 사무국에서는 큰 반응은 없었으며, 반면 학제간, 섹터간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국이 강화할 것을 요청함

- 실크로드 사업이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는데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하였고, 아프리카 노예의 길 사업에도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함
- 우리 대표가 언급한 아태지역 예산 적절한 배분 요청에 대해 이란이 지지발언을 하였으며, 북한은 증기전략 논의 시 일본의 육일기 사용이 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AI 규범 논의 시에 일본은 올림픽 현장에 따라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함.

5 문화(CLT) 분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20일(수)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21일(목)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11월 22일(금) / 10:00-13: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요지

- 문화 분과회의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II)에서 5차례 진행되었으며 △문화장관포럼 결과보고 △예루살렘과 39C/Resolution 36 이행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39C/Resolution 55 이행 등 관련 의제를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대다수 회원국들은 문화 분야 6개 협약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조 유지와 2030 아젠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문화의 국가 및 로컬 단위 정책에의 통합을 강조한 40C/5 초안을 지지함.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불법 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문화재 불법거래 관련 회원국 청원에 대한 사무총장의 규탄성명과 관련한 신규 문단을 추가하여 수정 채택 함.
-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를 카테고리2센터로 설립하는 안이 수정 없이 채택 됨.

● 논의 의제 및 일정

2019. 11. 20.(수)

- 의장단 선출
- 의제 및 토의일정 채택
- 의제 5.17 문화장관포럼 결과 요약 보고
- 의제 4.2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 의제 5.2 예루살렘과 39C/Resolution 36 이행
- 의제 5.3 아랍점령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39C/Resolution 55 이행

2019. 11. 21.(목)

- 의제 5.7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강화
- 의제 9.4 2015년 박물관과 컬렉션 보호 및 사회적 역할 증진에 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의제 9.5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의제 9.6 1980년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의제 5.12 국제이슬람예술의날 선포
- 의제 5.30 세계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후손 문화의 날 선포
- 의제 5.23 세계 올리브 나무의 날 선포
- 의제 5.22 세계예술의날 선포
- 의제 5.29 예술교육 및 세계예술교육주간 인식 제고
- 의제 5.16 국제문화증진기금(IFPC)
- 의제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세계유산해석 국제센터(대한민국 세종시) / 아랍지역 세계무형문화유산 국제역량강화센터(UAE, 샤르자시)]

2019. 11. 22.(금)

- 국제문화증진기금(IFPC) 활동에 관한보고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2018-2019)
- 1970년 협약 당사국총회 및 부속위원회 활동 보고(2018-2019)

-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 (2016년 1월-2017년 12월)
- 의제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 의제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Abbas Salim Halabi (레바논)
- 부의장 : H.E. Ms. Artemis Papathanassiou (그리스)
 H.E. Mr. Pablo Guayasamín (에콰도르)
 H.E. Ms. Rut Carek (크로아시아)
 H.E. Ms. Sabine Bakyono Kanzie (부르키나파소)
- 보고관 : H.E. Mr. David Measketh (캄보디아)

● 상세내용

의제번호	5.17 (40C/INF.19 and Add.)
의제제목	문화장관포럼 결과 요약 보고
	Forum of Ministers of Culture : summary of discussions

- CLT/ADG (Mr. Ernesto Ottone Ramire)는 11월 19일 개최된 문화장관포럼에 120개국 장관이 참여하는 등 성료됨을 알리고 참가한 회원국에 사의를 표함. CLT/ADG는 2030 아젠다 이행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의 중요한 역할, 문화 간 대화 및 사회적 통합의 필수 요소로서 문화다양성의 가치, 모두를 위한 평생 예술문화교육의 필요성, 교육과 고용 측면에서 창의 산업이 갖는 가능성, 문화와 다른 주제 영역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포럼에서 강조된 내용을 소개함.
- 발언한 국가(19개국)대부분은 최근 20년간 가장 많은 수의 문화 장관이 참가한 회의이자 내용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회의로 평가함. 특히,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 콜롬비아, 부르키나파소 등 다수의 국가는 2030 아젠다 달성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유네스코 중기전략 준비과정에서 동 포럼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발언한 다수의 국가는 2022년 세계문화정책회의 개최를 알린 멕시코에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 회의에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함.
- 한편 튀니지는 포럼에서의 논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문화정책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지표가 공유되길 희망함. 특히, 향후 논의에서 디지털 문화경제 분야에서의 구체적 수치들이 다뤄지길 희망함.
- 중국은 사무국이 제공한 포럼 보고서에 포럼에서 다뤄진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추후 Full-report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 이에 사무국은 Full-report가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상에서 제공키로 함.

의제번호	4.2 (40C/5)
의제제목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0-2021

- CLT/ADG는 문화 분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그 동안 실시해온 협의과정 및 534.6M 예산 시나리오에 따른 문화 분야 예산계획을 안내함.
- CLT/ADG는 40C/5가 39C/5의 기초를 유지하되 문화 분야 사업을 통한 2030 아젠다 달성에의 기여를 한층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네스코 문화 분야 6개 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규범운영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업들 간 상보성 강화를 위해 C/5 기대효과(Expected Results)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를 조정했다는 점을 소개함.
- 한편, CLT/ADG는 창의경제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창의역량 발현의 기회제공, 분야 간 협업 증진, 사회통합에의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같은 창의경제의 기여에 관한 데이터 생산 필요성을 언급함.
- 우리나라를 포함 발언한 23개국은 대부분 문화 분야 6개 협약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초 유지와 2030 아젠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문화의 국가 및 로컬 단위 정책에의 통합을 강조한 40C/5 초안(집행이사회 권고 : 40C/6 and Add 포함)을 지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유럽 국가들은 인권 존중이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의 핵심가치여야 한다는 점과 인권에 기초한 문화 분야 협약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이들 국가는 투명한 거버넌스, 예술적 표현의 자유, 성평등,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함. 노르웨이는 문화 분야 협약 보고시스템의 중복을 회피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스웨덴은 비정규예산의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유네스코 사업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정규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 폴란드, 이탈리아,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무력분쟁, 문화재 불법거래, 과도한 관광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
- 스위스는 문화 분야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회원국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캐나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문제를, 리투아니아와 오스트리아는 유산교육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함. 특히, 리투아니아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술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원국의 자발적인 재정적 기여를 촉구함.
- 우리대표(전진성 한위 문화팀장)는 2030 아젠다와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기조 및 수정된 문화 분야 사업 기대효과와 성과지표를 지지하고, 문화 분야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폭력과 갈등 해소, 평화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2003년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종합성과보고체계 도입과 사무국이 추진 중인 목록 메커니즘 개정을 지지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동 네트워크가 2030 아젠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리더십 발휘와 효과적 사업 관리를 촉구함. (폴란드, 이탈리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의 잠재력을 언급하고 사업의 효과적 활용을 강조함).
- 문화분과위원회는 별도의 수정 없이 결의안(40C/5 및 Corrigena, 40C/6 및 Add)을 채택함.

의제번호	5.2 (40C/16)
의제제목	예루살렘과 39C/Resolution 36 이행 Jerusalem and the implementation of 39C/ Resolution 36

- 의장 제안으로 논의 없이 결의안을 채택.

의제번호	9.4 (40C/36)
의제제목	2015년 박물관과 컬렉션 보호 및 사회적 역할 증진에 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5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useums and Collections, their Diversity and their Role in Society
의제번호	9.5 (40C/37)
의제제목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1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의제번호	9.6 (40C/38)
의제제목	1980년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 의장의 제안으로 3건의 의제를 함께 논의함.

- 2015년 권고 : 동 권고와 관련 발언한 국가들은 2030 아젠다 달성에의 기여 차원에서 동 권고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고, 박물관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중국은 동 권고가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물관 컬렉션에 대한 관리 정보 개선을 통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우리대표(김원영 주유네스코 대표부 서기관)는 사무국이 실시한 설문에 대한 답변 준비 과정에서 설문의 기준(소장품 분류 등)이 우리나라 국내차원의 기준과 차이가 있어 답변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설문준비 이러한 기준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이에 대해 사무국은 이번 설문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최초의 설문작업이었음을 언급하고 향후 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함.
- 2011년 권고 :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터키, 콩고공화국 등 동 권고와 관련하여 발언한 국가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와 기후재난의 증가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도시개발과 유산보호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동 권고가 갖는 의미에 주목. 이들은 동 권

고가 2030 아젠다 중 특히 11번 목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동 권고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 1980년 권고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터키, 이란,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동 권고와 발언한 국가들은 1980년 권고와 2005년 협약 모두 사회 안에서 예술가들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두 규범 간 상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두 규범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무국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특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자 민주사회 운영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의 강화를 주문함. 한편, 독일, 프랑스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세 의제 모두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5.12 (40C/26)
의제제목	국제이슬람예술의날 선포
	Proclamation of an international day of Islamic art

- 의장 제안으로 토론 없이 바레인이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 (11월 18일을 세계 이슬람 예술의 날로 선포)

의제번호	5.30 (40C/73)
의제제목	세계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후손 문화의 날 선포
	Proclamation of a world day for African and afrodescendant culture

- 의장 제안으로 토론 없이 토고가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 (1월 14일을 세계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후손 문화의 날로 선포)

의제번호	5.23 (40C/66)
의제제목	세계 올리브 나무의 날 선포
	Proclamation of a world olive tree day

- 의장 제안으로 토론 없이 레바논과 튀니지가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 (11월 26일을 세계 올리브나무의 날로 선포)

의제번호	5.22 (40C/65)
의제제목	세계예술의날 선포
	Proclamation of a world art day

- 의장 제안으로 토론 없이 멕시코와 터키가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 (4월 15일을 세계 예술의 날로 선포)

의제번호	5.7 (40C/21 and Add.)
의제제목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강화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CLT/ADG는 2020년이 동 협약 제정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 동안 협약의 이행 및 효율성, 가시성 증진을 위해 진행해온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함.
- 이집트는 동 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해 이집트와 그리스를 포함, 35개국이 제출한 수정결의안(40C/21 Add)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함.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물의 80-90퍼센트가 범죄조직, 테러집단 등 불법적 출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문화재의 불법 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동 의제와 관련 40개 회원국과 2개의 국제 NGO(IFLA, ICOM) 대표가 발언하는 등 금차 문화 분과위원회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이뤄짐. 이집트, 그리스를 포함하여 동 수정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국가들(중남미, 아프리카, 아랍 및 중국, 인도, 북한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은 협약의 가시성과 실효성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한편, 프랑스는 문화재 불법 거래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수정결의안 Para 5가 제안하는 이니셔티브(문화재 분야 딜러 윤리강령에 근거한 국제규범을 포함하여 불법문화재 거래에 대한 대응 활동 강화 수단 강구)의 필요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함.

- 스위스, 아이슬란드, 핀란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덴마크와 ICOM 대표는 1970년 협약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유니드로와 (UNIDROIT) 협약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가입하여 두 협약 모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대표(김동기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970년 협약 사무국이 이뤄낸 성과를 치하함. 특히, 협약의 효율성, 가시성, 이행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논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함. 우리대표는 2020년이 동 협약 50주년 기념해임을 상기하면서 그 동안 협약을 통해 거둔 성공사례가 소셜 미디어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되길 희망함. 특히, 올해 최초로 온라인상 국별 정기보고서를 취합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국가 간 성공사례 및 지식 공유 증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함. 또한 도난당한 문화재에 대한 목록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해 효과적인 추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끝으로, 동 협약은 관련 당사국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당사국 간의 대화와 협력 장려가 협약의 우선활동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수정결의안(40C/21 Add) 채택과정에서 인도는 “해당 국가의 청원이 접수될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문화재 불법 거래를 규탄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하도록 요청”하는 신규 문단을 제안함. 이와 관련 프랑스는 동 문단의 제안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단 삭제를 요청함.
- 상기 문단 관련, 유네스코 법률자문관은 1970년 협약 운영지침 71조에 이미 관련 조항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제안된 것처럼 해당 국가의 청원이 있을 때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공식성명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무총장의 자유 재량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문화 분과위원회는 열띤 논의 끝에 “문화재 불법거래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부터 검증 가능한 모든 필요한 문서와 함께 긴급 청원이 접수될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원산지로부터 불법 거래된 문화재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도록 요청한다”로 Paragraph 5를 수정 후 채택.

[Paragraph 5] Further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issue a public statement, whenever an urgent petition from an affected state is received accompanied by all necessary verifiable documentation of provenance, condemning the sale of an illicitly

traded cultural object from its country of origin, through highlighting the negative effects of such practice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o urge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discharge their duty according to the 1970 Convention in order to establish rules for the benefit of those concerned,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nd take steps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ose rules;

-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수정결의안(40C/21 Add) 문단 6(기존 문단 5)에서 불법문화재 거래에 대한 대응 활동 강화 수단 강구 중 '문화재분야 딜러 윤리강령'에 근거한 국제규범을 포함'한다는 부분의 삭제를 요청함. 이와 관련 수정안 원 제안국인 이집트와 독일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논쟁이 있었으나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아래 문단을 최종 채택함.

[Paragraph 6] Further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present to the eighth session of the Subsidiary Committee of the 1970 Convention a report containing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range of possible tools for strengthening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ranging from the most rapid to longer-term measures, including, amongst others, a possible standard-setting instrument, as appropriate, based on the Code of Ethics for dealers in cultural properties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1970 Convention, and elaborated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 applicable to standard-setting instruments.

의제번호	5.29 (36C/Res.38, 207EX/Dec. 27.I)
의제제목	예술교육 및 세계예술교육주간 인식 제고 Promoting Awareness of Arts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 우리대표(김동기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는 동 의제를 소개하며 예술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물론 인간개발, 사회통합,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예술교육증진을 목표로 2010년 세계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한 '서울 아젠다:예술교육발전목표'의 이행과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가 선포한 '세계예술교육주간: 5월 넷째 주' 기념에 모든 회원국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추진될 '예술과 함께하는 미래 캠페인(Growing with Arts Campaign)'과 내년도 '서울 아젠다' 채택 1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예술가교사회의' 및 '예술교육분야 유네스코 UNITWIN 회의'에 대해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함.

- 동 결의안(40 C/COM.CLT/DR.1) 제안 취지 설명이후 13개국(베트남,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나미비아, 태국, 터키, 리투아니아,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멕시코, 라오스, 독일, 부탄)과 국제음악위원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대표가 지지를 표명함.
 - 베트남은 서울 어젠다를 통해 제시된 예술교육 로드맵 이행 강화 필요성 및 평화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
 - 태국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가 개최되는 점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자 글로벌 전략으로서 예술교육을 지지한다고 언급
 - 라오스는 예술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라오스와 한국 국가위원회간 예술교육 및 교사역량 증진을 위해 공예디자인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을 소개
 - 독일은 예술교육이 문화와 교육 분야간 협력 제고에 있어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동 결의안의 시의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 캐나다는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서울 어젠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예술교육의 질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멕시코와 터키는 양국이 공동 발의하여 제40차 총회에서 승인된 '세계 예술의 날(World Art Day, 매년 4월 15일)'과 예술교육간 시너지 창출을 희망
- CL/ADG는 동 결의안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결의안을 준비해준 대한민국에 사의를 표명하고 예술교육 증진을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결의안(40 C/COM.CLT/DR.1)을 원안대로 채택.

의제번호	5.16 (40C/58)
의제제목	국제문화진흥기금(IFPC) 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FPC)

- 결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채택

의제번호	5.4 (40C/18.I to XIII)
의제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 세계유산해석 국제센터(대한민국 세종시) 설립/ 아랍 지역 세계무형문화유산 국제역량강화센터(UAE, 샤르자시)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우리나라(김원영 주유네스코 대표부 서기관)와 UAE가 각각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의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별도 논의 없이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

의제번호	3.1 (40C/11, 40C/INF.18)
의제제목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Present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41 C/4)

의제번호	3.2 (40C/7)
의제제목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Present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2-2025(41 C/5)

- 의장의 제안으로 두 의제를 함께 논의함.
- BSP국장 Mr. Jean-Yves Le Saux는 2022-2029년도 중기전략안 및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계획 및 향후 주요 일정을 소개했고 CLT/ADG는 두 문서 준비와 관련 문화 분야에서의 주요 협의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함.
- BSP국장은 2014-2021 중기전략(37C/4)의 기초(사업의 선택과 집중, 현장성 강화, 유엔활동 참여 강화, 파트너십 개발 및 강화)가 여전히 유효하나 그 규모와 속도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2022- 2029 중기전략 (41C/4)의 이행 시기가 2030 아젠다 달성 마감시한에 접해있음을 상기하며 2030 목표 달성에의 기여가 차기 C/4 및 C/5의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가 될 것임을 강조함.
- 우리나라를 포함 발언한 22개국은 대부분 2030어젠더 달성에 있어 문화의 기여, 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 두 문서의 기초를 지지함.

-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구유럽 국가들은 유네스코의 글로벌 우선순위로 '아프리카'와 '성평등' 유지를 지지하고 유네스코 사업 분야 간 협력 강화와 통합적 접근방법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이들 국가는 인권 존중이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의 핵심가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인 보호,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존중 등 인권에 기초한 문화 분야 협약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 아이슬란드, 독일, 영국은 MOPAN 보고서의 분석과 주요 내용을 차기 C/4 및 C/5 문서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것을 요청함.
- 스위스, 캐나다, 베네수엘라, 모로코는 문화 분야 협약 이행을 통한 2030어젠더 달성에의 기여를, 캐나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문제를 강조함.
- 에스토니아는 C/4 및 C/5 준비과정에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의 컨설팅이션 필요성을, 영국은 유네스코 지정사업/관리에 있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강조함.
- 러시아는 모술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무력분쟁지역에서의 유산 보호 노력필요성을 언급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일방주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일본은 유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설립하는 세계유산해석 국제센터가 유산분야 갈등해소 및 평화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 한편, 북한은 유산의 보호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고 문화분야 협약이행에 필요한 회원국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한편 북한은 문화분야 활동이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함.
- 우리대표(김원영 주유네스코 대표부 서기관)는 2030어젠더 달성 마감시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유네스코 상위분야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또한 문화분야 협약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예술교육과 같은 학제 간 협력사업 강화, 우선분야로서의 유산보호 및 유산해석, 카테고리2센터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2005년 협약의 성과를 치하하며 동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사무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 문화분과위원회는 별도의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 보고서 접수 : 문화분과위원회는 별도의 토론 없이 아래의 5개 보고서를 접수함.
 - 국제문화증진기금(IFPC) 활동에 관한보고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2018-2019)
 - 1970년협약 당사국총회 및 부속위원회 활동 보고(2018-2019)
 -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2016년 1월-2017년 12월)
- 관찰 및 평가
 - 예술교육 주간 관련, 금번 결의안 채택은 예술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특히 유네스코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학제간(intersectoral) 주제로서의 예술교육 증진에 있어 우리 측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측의 결의안 문안 회람이 당지 연휴 및 총회 개최와 시기적으로 중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그룹에 걸친 다수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예술교육에 대한 회원국들의 폭넓은 관심 및 관련 논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감안, 우리 측이 향후 유네스코 차원의 예술교육 논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2020년 유관 행사 준비시 유네스코와의 협력(유네스코 측 전문가 추천 또는 참여 등), 유네스코에서의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 행사 지원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함.

6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CI Commission)

- 일시 및 장소
 - 11월 18일(월) / 10:00~13:00; 15:00~20: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19일(화) / 10:00-13:00; 15:00-16: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요지**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XI)에서 4차례 진행되었으며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 SIS) 결과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제4차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등 관련 의제를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회원국들은 40C/5 내 CI섹터 조직개편 관련 오랜 논의 끝에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면서도, 구조 개편 관련 대대적 변화를 지양할 것을 제안하는 수정안을 채택함. 또한, 40C/5에서 언론인 안전, 표현의 자유, 미디어정보문해(MIL) 등에 대한 유네스코의 역할이 강조되고, 기록유산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것을 촉구함.
- 정보커뮤니케이션(CI) 섹터 역할의 중요성과 향후 전략적 방향성(41C/5, 41C/4)에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함. CI 섹터 산하 두 정부간위원회(IPDC, IFAP)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국이 치하함.
- 세계 토착어의 해 성과 및 토착어 10개년(2022-2032) 지정, 공개교육자원(OER) 권고문 초안, 글로벌 MIL 주간 선포(매년 10월 24일-31일) 등 주요 의제 중요성에 대부분 회원국이 동의하며 지지를 포함.

● **논의 의제 및 일정**

2019. 11. 18.(월)

- 개회(의장단 선출, IPDC와 IFAP 의장 보고)
- 의제 4.2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 의제 5.4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슬로베니아 국제인공지능연구센터(IRCAI))
- 의제 5.8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 SIS) 결과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의제 5.14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IL) 주간 선포
- 의제 9.8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제4차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2019. 11. 19.(화)

- 의제 5.26 2019 세계토착어의해 전략적 결과 문서

- 의제 8.2 공개교육자원(OER) 권고 문안 제안
 - 의제 9.7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 의제 5.25 정보사업 정부간위원회(IFAP) 규정 개정
 - 의제 3.1 2022-2029년도 증기전략(41C/4) 준비 작업
 - 의제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의장단 선출
 - 의장 : Mr. Christian Ter-Stepanian (아르메니아)
 - 부의장 : 대한민국(그룹 IV)의 안은주 공사 포함, 캐나다(그룹 I), 온두라스(그룹 III), 가나(그룹V-a) 대표 등 4인으로 결정 되었으며, 보고관은 회의 초반 모로코 대표 1인으로 결정함
- 상세내용
 - IPDC와 IFAP 의장 보고(40C/REP/24, 40C/REP/25 and Add.)
 - IPDC 의장은 인터넷 보편성 지표(Internet Universality Indicator) 포함, SDG 16번 이행 관련 IPDC의 성과(특히, 16.10.1과 16.10.2 관련)를 보고함. 허위정보(disinformation) 관련 핸드북 발간을 소개하고, 미디어 발전 관련 147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음을 강조함. 이와 함께 공여국에 사의를 표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IFAP 의장은 지난 2년간 IFAP 국별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통해 많은 회원국이 기여했음을 밝히고, 그중 특히 러시아의 지원에 사의를 포함. 가나의 'Girls Can Code' 행사를 비롯한 성과들을 소개하고, 의제로 올라온 IFAP 정관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IFAP 활동 관련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의제번호	4.2 (40C/5)
의제제목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0-2021

- 사무국(ADG/CI)은 40C/5가 39C/5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 MLA와 ER에 변함이 없음을 소개함. 다만,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신규 PI 추가 등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음을 소개함. 혐오발언과 허위정보 타개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강조하고,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언론인 자유 및 미디어 발전 등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소외그룹에 특히 관심을 가질 것임을 밝힘. 40C/5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특히, 유엔 시스템 내에서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섹터가 고유의 역할(unique role)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 28개 회원국이 발언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CI섹터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고, 방향성을 지지함.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케냐, 우간다 등 다수의 회원국은 언론인 안전과 표현의 자유 관련 유네스코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활동이 지속되어야함을 밝혔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온오프라인 여성 언론인 안전을 강조했음. 그 중 덴마크는 언론인 안전과 언론인 대상 범죄 불처벌 이슈에만 집중해 발언함. 라트비아, 노르웨이, 우간다, 독일, 쿠바, 이란, 케냐, 엘살바도르, 이집트,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웨덴, 바베이도스, 베트남, 온두라스 등 다수의 회원국이 IPDC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성과를 치하함. GRULAC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그룹) 소속 2개국은 2020년으로 예정된 IPDC 정관 개정이 잘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한국,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불가리아, 튀니지, 뉴질랜드, 핀란드는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테러를 언급하며, 혐오표현 및 허위정보 타개를 위해 MIL이 필요함을 강조함. 캐나다, 우간다, 불가리아, 네덜란드, 튀니지, 바베이도스는 MOW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불가리아, 튀니지, 세인트루시아는 MOW 프로그램 관련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이외에 케냐는 아프리카 우선순위를, 바베이도스는 SIDS를, 라트비아와 캐나다는 토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독일과 스웨덴은 인터넷 보편성 지표(Internet Universality Indicator)를 환영하는 발언을 함. 엘살바도르, 캐나다, 스웨덴, 가나 등 회원국은 가장 높은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 러시아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지적하였고, 공식의 빠른 충원을 촉구함. 아울러,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조직개편을 41C/5 채택

이전에는 하지 않아야함을 언급하였고, 이집트,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등이 이를 지지함.

-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CI 섹터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MIL, 디지털 격차 해소, 온오프라인 언론인 안전 등을 지지한다고 밝힘. 아울러, 국가위원회, 카2센터, 유네스코 석좌 및 유니트윈 등 유네스코의 네트워크가 유네스코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 사무국(ADG/CI)은 IPDC의 예산이 39C/5 대비 40C/5에서 늘었음을 설명함. CI의 공석과 한정된 인력이 CI 섹터 사업 이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고,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 안에 인력이 충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아울러 CI 섹터가 역동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임을 강조하며, 인력채용을 통해 이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힘. 법률가/판사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39C/5 대비 언론인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교육 섹터에서 언론인 대상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을 설명함. 또한 아프리카 우선순위를 늘 염두하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좋은 협력관계 및 파트너십이 해당사업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함. 이와 함께, MIL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함께 제기되어야하는 이슈들이 많아 다각적인 접근과 다양한 파트너십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핀란드, 인도와 함께 개최한 ‘게임 통한 MIL’ 부대행사도 소개함.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 인터넷 보편성 지표 채택 등도 언급하고, CI 섹터가 조직 내에서 AI 이슈 관련 코디네이션에 리더십이 있음을 강조함. 또한 보편적 정보 접근에 기여 가능한 다언어사용 및 토착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MOW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전문가그룹 등 그동안 다양한 노력 있었고 집행이사회에서 작업반 구성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안이 채택된 바,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다수의 회원국이 언급한 기록유산의 디지털화 및 보호 등을 언급하며, 이는 토착어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발언함. CI 섹터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일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고 강조함. 또한 사무국에서 제안한 가장 높은 예산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GRULAC 그룹에서 언급한 IPDC 거버넌스 정관 개정 관련해서는 다음 자문회의에서 적극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언론인 대상 범죄 관련 사무국의 관심을 강조함.
- 결정문 수정 후 채택

- 의장은 534.7M 예산안이 채택되었음 재환기하고, 수정제안이 없는 바, 결정문을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으나 모로코가 CI 섹터 조직개편 관련 새로운 문단을 마지막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이에 사무국(ADG/CI)은 CI섹터 조직개편은 사무국 관리 이슈로 간주되어야 하고, 조직개편이 섹터의 사업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함.
- 이후 본 수정안을 두고, 회원국 간 및 사무국-회원국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으며, 본 안건은 2차례 논의가 중단됨. 의장의 중재노력, 회원국 간 개별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모로코가 애초 제안했다가 철회한 뒤 러시아가 다시 수정 제안했던 안을 재차 수정한 오스트리아의 안에 독일이 낸 수정의견이 반영된 안(no major restructuring을 any major..로 수정 등)이 최종 채택됨. 수정안은 집행이사회와 DG의 권한을 인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전환 3단계 이전에 어떤 주요 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3. Without prejudice to the prerogatives of the Executive Board and Director- General and bearing in mind the need to strengthen transversality and intrasectorality, recommends that any major restructuring takes into account the results of Pillar 3 of the Strategic Transformation, as well as the discussions which took place at the 40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 그 외 볼륨 II 및 나머지 부분들의 결정문들은 논의 없이 채택됨.

의제번호	5.4 (40C/18. II)
의제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설립(슬로베니아 국제인공지능연구센터(IRCAI))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논의 및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
- 결정문 채택 후 슬로베니아 감사 발언함. 본 센터가 AI 윤리 관련 부분 당연히 기여하겠지만, 훨씬 넓은 분야를 다룰 것이며 유네스코와 다른 다양한 파트너와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사무국의 지원과 회원국의 지지에 사의를 포함.

의제번호	5.8 (40C/22)
의제제목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 SIS) 결과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 General on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 SIS) outcomes

- 러시아를 제외한 다수의 회원국이 W SIS내 유네스코의 역할 및 성과를 치하함. 핀란드, 프랑스, 태국, 스위스, 라트비아 등 다수의 회원국이 인터넷 보편성 지표를 환영함.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등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네스코의 역할을 치하함. 교황청(옴저버)은 human based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함.
- 러시아는 보고서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보편성 지표 채택과 세계 토착어의 해 지정 외엔 특별한 성과가 없다며 혹평함. 2019년 이후 유네스코의 역할 또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러시아는 3번 패러그래프에 수정안 제안. 유네스코의 W SIS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인디케이터 개념 넓혀야하기에 developing 이라는 표현 추가하고, ICTs에는 AI 말고도 많은 바, including 추가 제안.
- 스웨덴은 러시아 안에서 developing이 아닌 implementing을 추가하기를 제안했고, 독일이 지지하며, 스웨덴안에 human rights based application 추가를 제안. 캐나다는 스웨덴 안을 지지함.
- 러시아는 스웨덴 안에 동의하나, further developing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스웨덴 동의.

의제번호	5.14 (40C/28)
의제제목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IL) 주간 선포
	Proclamation of a Global Week of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 대한민국 포함 18개국이 지지 발언을 함. 라트비아는 주간선언을 지지하며, 가나, 자메이카 등에 사의 표함. 오스트레일리아도 지지하고, 국내 MIL 주간이 있음을 소개함. 아르메니아와 핀란드도 지지하며, 혐오발언 관련 MIL의 중요한 역할 강조함. 핀란드는 섹터 간 역할도 강조함. 러시아는 주간 선언에 동의하며, 러시아도 MIL에 기여했음을 소개. 교육섹터와 CI섹터의 노력, IFAP와 IPDC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함. 태국은 허위정보 관련 유네스코 핸드북을 태국어로 번

역해서 출간했음을 소개함. 대한민국도 발언을 통해 주간 선포 및 내년 유엔에서 채택도 지지한다고 밝히고, MIL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세계시민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2020년 글로벌 MIL 주간 대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소개함. 리투아니아, 부르키나파소도 지지함. 스웨덴은 지지발언을 하며, 미디어 내 성평등, 언론인 안전, 도서관과의 협력 등을 강조함. 자메이카, 튀니지, 카메룬, 우간다, 세르비아, 레바논도 지지하였으며, 에스토니아는 청년대표가 동석하여 발언하기도 함.

-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번호	9.8 (40C/40)
의제제목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제4차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Fourth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Use of Multilingualism and 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

- 논의 없이 결정문 원안대로 채택.

의제번호	5.26 40C/68
의제제목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제4차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Fourth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Use of Multilingualism and 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

- 사무국(ADG/CI)은 세계토착어의 해에 800개 이상의 활동이 전세계적으로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및 평화를 위한 토착어의 중요성 등 강조함. UN에 2022-2032을 토착어10년(decade)으로 선포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 소개 및 지원국에 사의 포함.
- 캐나다는 본 문서 및 토착어 10년(2022-2032) 지정을 환영함.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사미족 대표가 발언을 통해 토착어의 해 기념 환영하고, 10년 지정에 지지를 요청함. 또한 토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별 관련 활동을 소개함. 뉴질랜드는 자국의 토착어 보존 관련 노력 소개하고, 유네스코의 역할 치하

하며 지지함. 에스토니아는 세계토착어의해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 치하하고 토착어10년을 지지함. 러시아는 유네스코의 역할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몇 개 사업이 이행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세계토착어의해 홈페이지가 세 개 언어로만 된 것에 우려 표함. 아울러, 문서에 IFAP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에서 개최했던 국제회의의 포함 주요 회의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토착어10년 제정은 지지함. 라트비아와 중국은 지지함. 중국은 특히, 언어다양성을 강조하고 관련 활동 내 중국기여를 소개함. 아이슬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지지함.

- 사무국은 IFAP 포함 러시아의 지지에 사의 표하고, 전략문서에 러시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최측(IFAP national committee)이 세계토착어의해 공식 이벤트로 등록되길 원하지 않아서였음을 밝히고, 토착어의 중요성과 유네스코의 역할 재강조함.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러시아는 IFAP 관련 내용 포함한 CI섹터의 역할(리딩 섹터) 강조하는 신규 문단 8.b 추가.
- ADG는 러시아에 사의를 표하면서, IFAP이 CI 섹터 내(within)에 있음을 강조하고, IFAP 뿐만 아니라 IPDC도 역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IFAP만 거론되는 것에 살짝 우려를 포함. 러시아는 in partnership with 를 including through IFAP으로 수정 제안. 스웨덴은 involving the IFAP as appropriate.로 수정하자고 제안.
- 그레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안 지지 및 채택.

의제번호	5.26 40C/68
의제제목	공개교육자원(OER) 권고 문안 제안 Proposal of a draft text of a Recommendation on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 사무국(ADG/CI)은 권고문 초안을 위해 교육 섹터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했음을 강조. 루블라냐 액션플랜 및 SDG에 근거하고 있고, 회원국 포함 다양한 자문을 거쳤음을 강조함. 회원국 지지 및 기여에 사의 표함.
- 사무국(ADG/ED)는 OER 관련된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권고문 초안 채택은 유네스코가 OER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설명함.

- 슬로베니아는 권고문 초안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추후 권고문의 이행 관련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캐나다, 라트비아, 덴마크, 가나, 핀란드, 독일, 튀니지 등 다수 회원국이 권고문 초안 지지 발언을 함. IFLA(협력 NGO)는 발언을 통해 OER 권고문 초안을 지지하며 국제 NGO 및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촉구함.
- 벨기에는 권고문 초안의 워딩을 수정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의장은 현시점에서 권고문 문구 수정은 어려운 바, 제안을 구두보고(oral report)에 포함하겠다고함.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결정문 수정 후 ADG/CI가 합의(consensus)로 권고문 초안 채택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교육센터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을 전함.

의제번호	9.7 (40C/39)
의제제목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 사무국(ADG/CI) 2015 권고문의 첫 보고임을 소개이며, 206EX에서 논의되고 채택되었음을 밝힘.
- 의장은 본 보고서가 행재정적 합의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논의 없이 결정문 채택을 제안하고 채택됨.
- 쿠바는 뒤늦게 발언을 신청하고, 본 권고의 중요성 및 쿠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힘. 또한 환영함. (추가 논의 없었음)
-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5.25 (40C/41)
의제제목	정보사업 정부간위원회(IFAP) 규정 개정 Revision of the Statutes of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IFAP)

- 의장은 법률 위원회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본 문서를 채택했음을 소개.

- 사무국(ADG/CI)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IFAP 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워킹그룹에서도 논의했음을 언급함.
-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3.1 (40C/11, 40C/INF.18)
의제제목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Present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41 C/4)
의제번호	3.2 (40C/7)
의제제목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Present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2-2025(41 C/5)

- 의장은 본 의제의 결의안은 합동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림.
- 사무국(CI)은 지난 7월 개최된 자문회의에서의 건설적 제안에 사의를 표함. 전략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문서임을 강조하고, CI섹터가 SDG 16 이행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회원국이 자문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인 안전 및 정보접근 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역할 해줄 것을 요청했고, AI 관련 팀 간 코디네이션 역할 또한 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환기함. 또한 디지털 전환 관련 본 문서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MIL과 미디어 발전 관련 중요성을 강조함. 사무국(BSP/DIR)은 두 문서 관련 향후 논의 타임라인 (국가위와의 협의 포함) 및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유함.
- 대한민국 포함 26개국이 발언을 통해 전략문서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지지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북한도 발언함. 대한민국은 발언을 통해 일몰조항을 언급하고, CI 사업을 위한 적절한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MOW 프로그램의 강화를 지지함. 기록유산 보호가 지식사회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기후변화가 유네스코 모든 사업 내에서 우선순위로 거론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영국은 C/4를 지지하며, 미디어 펀드의 중요성 및 언론인 안전 수호를 강조함. 아울러 MIL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MOW 프로그램이 정치화 없이 기록유산의 가치에만 집중하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함. 러시아는 사무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식사회 건설, 정보 및 미디어 윤리, 미디어의 역할, 고급 정보 접근, 언어 다양성, 토착어, 분쟁지역 언론인 안전,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및 MIL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 또한

IFAP과 IPDC의 주요 성과를 등 문서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발언함. 폴란드는 두 정부간위원회와 MOW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MOW 프로그램이 재가동되고, 등재가 다시 시작되는 등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DR콩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는 모두 전략문서의 방향성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인 안전, MIL, 성평등 등을 강조함. 북한은 빠른 디지털 환경 발전 속 정보격차를 우려하며, 유네스코가 저개발국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함. 또한 MOW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원칙에 기반해야함을 강조함. 또한 북한이 포용적인 지식사회 건설에 앞으로도 기여하겠다고 밝힘. 레바논은 MOW 프로그램과 MI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스웨덴은 우선순위 고려, 성평등, 표현의자유, 언론인-예술가-과학자의 표현의 자유 등 주요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함. 또한 IPDC가 유엔 내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미디어 발전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강조함. 라이베리아, 프랑스, 아르메니아도 주요 이슈들을 언급하며 지지를 표함.

- 사무국(ADG/CI)은 지지를 표한 회원국에 감사하고, 다음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주요 사업을 언급해준 것에 사의를 표함. SDG 이행에 있어 CI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함.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언론인 안전 유엔 액션플랜, 온오프라인 여성 언론인 안전을 언급하고, 성평등 중요성에 공감함. 언어다양성,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MIL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MIL 주간 선포에 사의를 표함. 기록유산 관련 지지에도 사의를 표함. 이와 함께 인간 중심 접근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인터넷 보편성 관련 ROAM 원칙도 언급함. 아울러 한국이 언급한 기후변화 관련, 모든 사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함.
- 사무국(BSP)도 회원국들에 사의를 표하고, 합동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겠지만, 자문과정이 최대한 포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캐나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여 토착어의 해 의제 관련해서, 토착어는 CI섹터만의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전분야의 기여가 필요하며 CI섹터가 이를 모니터링해야한다는 내용을 의장 구두 보고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함.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가 추가 발언을 통해 지지함.

● 관찰 및 평가

- CI섹터의 조직개편 회원국간 그리고 일부 회원국과 사무국 간 치열한 논쟁이 있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CI 섹터의 방향성 및 주요 사업에 지지를 표하였음.

- 혐오표현과 허위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격차 완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회원국이 많았음. 2020년 글로벌 MIL 주간 대표회의 및 청년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MIL 관련 한국의 리더십 및 유네스코 내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MIL 관련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특히, 2020년은 올해 글로벌 MIL 주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후 열리는 첫 회의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기록유산 관련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몇몇 회원국이 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정상화, 정치화를 배제한 기록유산의 가치에 집중 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음.

7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APX) 분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13일(수) / 11: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14일(목)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15일(금)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16일(토) /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요지

- 동 분과위원회는 가장 높은 예산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략 문서들을 채택함.
- 이 외에도 비정기구기구 활동 보고, 분담금 납입 현황 보고, 카테고리2전전략 채택 등이 진행됨.
- 회원국들은 특히 재분류(reclassification) 관련 정책에 의문을 다수 표했으며, 전략적 전환의 성과가 Pillar 3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 논의 의제 및 일정

2019년 11월 13일(수)

1.3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4.1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 4.2 2020-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 2.1 2014-2017년도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5.32 세계 포르투갈어의 날 선포

2019년 11월 14일(목)

- 5.1 2020-2021년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회원국 제안
- 10.1 비정부기구(NGO)의 유네스코 활동 기여 4개년 보고
- 11.2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그리고 운영기금
- 11.3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 10.2 유네스코 협회, 센터 및 클럽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 5.35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전략
- 13.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2.1 2014-2017년도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계속)

2019년 11월 15일(금)

- 11.1 2018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 12.1 직원 규정 및 규칙
- 12.2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
- 12.3 UN 공동직원연금기금
- 12.4 의료혜택기금(MBF)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12.5 2017-2022 인적자원관리전략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2019년 11월 16일(토)

- 6.2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 3.1 2022-2029년도 증기전략(41C/4) 준비 작업
-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 6.1 유네스코 지배기구 거버넌스, 절차 및 작업 방식
- 12.4 의료혜택기금(MBF)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계속)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s. Maria Diamantopoulou (그리스)
- 부의장 : H.E. Mr. Ferit Hoxha (알바니아)
H.E. Mr. Murilo Vieira Komniski (브라질)
H.E. Mr. Dong Gi Kim (대한민국)
H.E. Mr. Nassim Mohamed Amer (알제리)
- 보고관 : H.E. Dr. Samson Kantini (잠비아)

- 상세내용

의제번호	1.3 (40C/10 and Corr.)
의제제목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communications received from Member States invok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V.C, paragraph 8(c), of the Constitution

※ 역년(calendar year) 기준, 당해 연도 및 직전연도 체납 분담금 총액이 납부한 분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회원국의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함. 단, 분담금 체납의 3개 불가항력 사유(전쟁 및 무력분쟁 상황, 경제 및 금융 위기, 자연재해)가 충족되면 투표권이 유지될 수 있음.

- 분담금 작업반은 총 5회의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보고함. 11.14 기한 내 총 7개국(코모로스,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베네수엘라, 예멘) 커뮤니케이션을 제출했음을 알림.

※ 수단과 예멘은 불가항력 기준 충족하여 투표권 유지함.

- (코모로스) 지속적인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언급하였으며, 향후 6년간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해 갈 것임을 명시함. 이에 작업반은 코모로스 분담금 체납의 사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총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이란) 경제 제재로 인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언급하였고, 해당국의 상황이 이해되었는바 총회 투표권 부여를 제안함.
- (리비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담금을 체납하였음이 인정되어, 총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소말리아)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납부의 의지를 보인바, 작

업반은 소말리아에 총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베네수엘라) 2019년도 베네수엘라는 UN시스템에 분담금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작업반은 베네수엘라에 총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11.14. 기한 내) 커뮤니케이션 미제출 7개국 : 앤티가바부다, 콜롬비아, DR콩고,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남수단, 동티모르
- 상기 7개국은 총회 투표권이 박탈됨.
- 40 C/10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됨
 - ※ 독일, 필리핀, 슬로베니아 분담금 작업반 활동 중지 의견 표명 후 승인됨. 상기 3개 공식에 대한 ‘분담금 작업반’ 참여 희망 국가를 조사하였으나, 자원한 국가는 없었음.

의제번호	4.1 (40C/5)
의제제목	2020-2021년도 예산 준비 및 예산 편성 기법
	Methods of preparing the budget, budget estimates for 2020-2021, and budgeting techniques

- 사무국(CFO)은 40 C/5에 39 C/5 예산 편성 시와 동일한 ‘통합 예산(integrated budget framework)’ 및 ‘성과기반예산(RBB : Result-Based Budget)’ 방법이 적용됨을 밝힘.
- 41 C/COM.APX/DR.1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됨

의제번호	4.2 (40C/5)
의제제목	2020-2021 사업 예산 및 예산안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0-2021

- 사무국이 40 C/5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함.
- 2년 주기 사업 및 예산안이므로, 39 C/5의 내용을 함께 연계하여 참고해야 함.
- 현재 제안된 40 C/5 초안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그 기본 골자는 39 C/5의 내용과 동일함.
- 또한, 동 초안은 가장 높은 예산 상한 시나리오(534.6백만 미불)를 전제로 작성되었음을 안내함.

- (Part I) General Policy and Direction 예산 배정안 : 수정 없이 결정문 채택
- (Part II.A)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Management of field offices, Supplementary funding for the Field Network Reform 예산 배정안
 - 08000 결정문 (Management of field offices)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 : “(이집트 수정 제안) ... 1. (b) to allocate for this purpose, for the period 2020-2021, integrated budget amount under all sources of fund of : In the case of the budget scenario which included the regular budget of \$534.6 million : \$91,518,900 and \$500,000 supplementary funding for field network reform;”
- (Part II.B) Sector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action to implement gender equality, Strategic planning, Public information 예산 배정안
 - (앙골라) ‘루안다 아프리카 평화에 관한 비엔날레’ 추가 언급을 제안함.
 - (이집트) 아프리카 우선 전략 차원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 북아프리카 국가도 포함될 수 있기를 제안함. 이에 ADG/PAX는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라 답변함.
 - 09100 결정문 (Sector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
 - “(이집트 수정 제안) Priority Africa (b) (iii) strengthen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all African Member States, including Member States from electoral group 5b,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AUC) ...”
- ※ 캐나다가 총회 계기에 C/5 문서에 추가 수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으나, 사무국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수정이 아닌 문구의 추가적인 명료화(clarification) 차원의 수정이라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함.
- (Part II.C) Participation Programme and Fellowships 예산 배정안 : 수정 없이 결정문 채택
- (Part III.A) Sector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Reserves for staffing adjustments and for the After Service Health Insurance long-term liability (ASHI) 예산 배정안
 - (캐나다) 11000 결정문 (Sector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관련, IT 보안 부문에 충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11000 결정문 (Sector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 : "(나이지리아 수정 제안) ... (a) provide an **improved revised** structure for the services within the Sector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

의제번호	2.1 (40C/3 and Add.)
	38C/5 잔액 처리 방안 등
의제제목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o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in 2014-2017, presented by the Chair of the Executive Board

- 잔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11.14.) 결정문 검토 및 채택을 재개하기로 함.
-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 :
 - “Having examined document 40 C/3 and add.,
 1. Takes note that a total amount of \$27.5 million became available as unspent funds under the 38 C/5 expenditure plan;
 2. Approves **the further** carry forward of the remaining unspent funds **from** the 38 C/5 **regular** budget, to be used in the 2020-2021 biennium, **for purposes set out in the respective decisions of the Executive Board, specifically under the 204 EX/Decision 20.II.B, paragraph 4 and 5, and 206 EX/Decision 4.II.C paragraph 3;**”

의제번호	5.32 (40C/75)
	세계 포르투갈어의 날 선포
의제제목	Proclamation of a world Portuguese language day

- 수정 없이 결정문 채택됨.

의제번호	5.1 (40C/15)
	2020-2021년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회원국 제안
의제제목	Proposals by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celebration of anniversaries in 2020-2021 with which UNESCO could be associated

- 수정 없이 결정문 채택됨.
 - ※ 결정문 채택 후, 대한민국 당진시 및 한국천주교구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일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회의장에 참석하였음을 언급하며, 기념일 지정에 사의를 포함. 동 기념일

지정 제안 관련 필리핀, 베트남의 지지에 사의를 표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업적 및 기여를 소개함.

※ 이후 방글라데시, 크로아티아 등이 자국의 기념일 지정 관련 발언

의제번호	10.1 (40C/42 and Add.)
의제제목	비정부기구(NGO)의 유네스코 활동 기여 4개년 보고
	Quadrennial report on the contribution made to UNESCO's activities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40 C/42 및 Add. 결정문 채택)

•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 :

• “(러시아 수정 제안) ... 2. Highlights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partnership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actors working alongside UNESCO and its Member States ~~within appropriate spaces, as necessary~~, to enhance UNESCO's programme delivery and more broadly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 러시아 및 파라과이는 비정부기구가 유네스코의 집행이사회 등 의결 과정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비정부기구가 부여된 영역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유네스코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within appropriate fora)의 추가를 제안함. 이에,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다수 유럽 국가는 비정부기구의 활동 영역의 제한을 강조하는 추가적인 문구 삽입에 반대함. 해당 결정문은 (추가 문구 삽입 없이)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며, 다만 의장 보고 시 해당 사항을 언급하기로 함.

• “(덴마크 수정 제안) 3. Encourages the Secretariat to replicate the good practice of the relevant convention including 2003 and 2005 on civil society involvement;”

※ 이에,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는 2005년 협약이 유네스코의 모든 회원국이 가입·비준한 ‘보편적’ 협약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 문구의 추가를 반대하며, 상기와 같이 수정된 문구 (relevant convention including 2003 and 2005 on civil society involvement)가 채택됨.

• “(러시아 수정 제안) 5. ~~Invites the Director-General,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consider cooperation with NGOs which show a lack of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in liaison with National Commissions where available and with and other players as appropriat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nditions are in place to revitalize these partnerships or consider their possible termination;~~”

※ 러시아는 국별 NGO 협력관계 관리에 있어서 국가위원회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기 문구의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스페인이 수정안을 지지함. 반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위원회의 성격과 규모가 국가마다 상이하며, △수정 문구가 원안의 내용을 변경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문구의 수정을 반대함. 결국 해당 문구 전체를 삭제함.

- “(터키 수정 제안) 5.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increase efforts for ensuring that the network of NGO partnerships are geographically representative and balanced while establishing official relations with those NGOs that already actively cooperate with UNESCO;”
- “(러시아 수정 제안) 9. Considers that effective interactive dialogue and communication between Member States, NGOs and the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force is a key element in ensur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many issues within UNESCO's mandate and amplifying the reach of its message, and thanks the Executive Board for its ongoing reflection on improving dialogue between Member States and NGOs.”

의제번호	11.2 (40C/44)
의제제목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그리고 운영기금 Scale of assessments, currency of Member States' contributions and Working Capital Fund

- 40 C/44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

- ※ 결정문 채택 후 베네수엘라는 유네스코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별 분담금 납부 가능 여부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 발언을 의장 구두 보고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의제번호	11.3 (40C/5 Rev. and Add.)
의제제목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Collection of Member States' contributions

- 사무국(CFO)이 주요 내용을 보고함.

- 분담금 체납국 :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남수단

- 결정문 다음과 같이 수정 후 채택

- “(러시아 추가 제안) 13. 7.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present to the 210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her proposals on possible revisions to the Financial Regulations to provide mechanisms to adjust contributions assessed on Member

States with a view to take due account of unspent balances under the regular programme budget."

의제번호	10.2 (40C/77)
의제제목	유네스코 협회, 센터 및 클럽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Amendment to the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Associations, Centres and Clubs for UNESCO (39C/54)

- 결정문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

- "(법률위원회 제안) The General Conference, ... Considering the annex of the Resolution to document 39 C/5490, entitled ~~Draft~~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Associations, Centres and Clubs for UNESCO, paragraph 1.5 of which suggests the abolition of the designation "Centres for UNESCO" by the end of the 2017-2019 biennium,

Also considering the importance which UNESCO attaches to the Centre for UNESCO in accordance with document 167 EX/16 of 21 August 2003 propos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relations with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for centres and institutes engaged in scientific activities."

- "(스페인 추가 제안)

1. Recommends that paragraph 1.5 of the annex to the Resolution 39 C/5490, entitled "~~Draft~~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Associations, Centres and Clubs for UNESCO", be amended as follows:

- 1.5 It was agreed at the Consultation Meeting that the use of "Centres" as being part of the Associations and Clubs for UNESCO movement should be seriously reconsidered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Centres for UNESCO" could continue to exist under this name for a transitional period of two year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is Regulatory Framework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39th session, until such time as they either become a category 2 centre, or change their designation to become either a "Clubs" or "Association" for UNESCO;
- 1.6 Due to the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complexity of changing the name "Centre for UNESCO" for "Association or Club UNESCO", the Centres for UNESCO could continue to exist under this name for an additional period of two years

until the 41s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the presentation by the Secretariat of the report concerning this decision. At the end of this period, their status will have to be brought into line with 39 C/Resolution 54 of the 39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paragraph 1.5;

(세인트루시아 제안) The Centers for UNESCO could continue to exist under this name for an additional period of two years until the 41st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t the end of this period, a final decision on their existence shall be taken."

※ 가나, 세인트루시아 등 다수 국가는 '유네스코 협회, 센터 및 클럽 규제'에 있어서 국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정문 내 국가위원회의 역할 등을 명확히 추가할 것을 요청함.

의제번호	5.35 (40C/79)
의제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전략 Strategy for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2019)

- (스페인) 카테고리 2센터 3자계약(vii. Signature of agreement and entry into force)이 MoU의 성격인지, 아니면 International Treaty의 성격인지 문 의함. 계약의 성격이 International Treaty에 해당할 경우 (다른 다수 회원국 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은 센터와의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유네스코-회원국-카테고리 2센터) 3자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국내법상 불가능함.
- (사무국) 유네스코는 국제기구로서 국제법인격을 지님. 카테고리 2센터와의 계 약 체결을 통해 센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협정 체결의 주체가 회원국에 제한되어) 3자 체결이 어려울 경우, △유네스코-회원국, △유네스 코-카테고리 2센터 간 계약을 동일한 날 각각 별도로 체결하는 방안이 가능함.
- 40 C/79 결정문 수정 없이 채택됨
 - 수정 없이 채택됨.

의제번호	13.1 (40C/54.I and II and Addenda)
의제제목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및 본부위원회의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in cooperation with the Headquarters Committee, on managing the UNESCO complex

- 세인트루시아의 제안에 따라 결정문 내 '전문(preamble)'이 일부 수정되어 채택됨.

의제번호	11.1 (40C/43)
의제제목	2018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elating to the accounts of UNESCO for the financial period ended 31 December 2018, and report by the External Auditor

- (CFO) 제출된 유네스코 재정보고서 및 외부감사 보고서는 205차 집행이사회에서 기승인된 바 있음. 총회의 승인을 요함. ASHI가 채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 (외부감사) 유네스코의 재정은 IPSAS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집행되었음. 업무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통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바, 비정규예산 기여 협정 개선 등의 조치를 환영함. 탈퇴한 2개국의 미납금은 그들의 WCF 선납금으로 해결되었음. 또한, 사기 방지 메커니즘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모범 사례들을 참고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야 함.
- 회원국은 유네스코 사무국과 신규 외부감사 기관 간 협력이 조화롭게 이뤄진 것에 만족을 표함.
- 수정안 없이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12.1 (40C/48 and Addenda)
의제제목	직원 규정 및 규칙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 사무국(DIR/HRM)은 직원 직급 분류 정책(classification policy)가 개정되었음을 알리며, 사무총장에게 직원이 직접 재분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은 중지(suppressed)되었음을 알리고, 대신 해당 직원의 상급 매니저가 사무총장에게 분류 신청을 제출하고, 거절 시 ADG가 중재하는 대안을 제시함. 이와 관련, 다수 회원국이 이 부분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분류(reclassification) 정책 관련 거세게 의문을 제기했음. 일례로, 세인트루시아는 직급 재분류 정책(reclassification)은 직원 개개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막는 정책이 충분한 명분 없이는 MBF 관련 국제 법원에서 유네스코가 패소한 전력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함. 이에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등이 동의를 포함.

- 또한, 노르웨이, 영국 등 다수 회원국은 내부고발자 및 내부 항소(appeals) 관련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청함. 이에 대해 사무국은 유네스코의 관련 규정은 UN 관행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리며, 상세 규정은 윤리위원회가 보고할 예정임을 알림. 윤리위원회 대표는 내년도에 내부 고발자 관련 정책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을 밝힘.
- STU는 재분류 정책 관련, 102.2 규정을 철폐하려는 DG의 결정은 직원들의 권리에 반하는 조치임을 피력함. 또한, 2개의 직원노조가 별도 요청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Appeals Board에 읍저버로 참석 할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 AIPU는 회원국들이 선택한 예산 시나리오는 직원 관련 개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함. 집행이사회가 신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함. 전략적 전환 관련 성과 환영하나, 기존 개혁 성과를 상쇄하지 않게 되길 희망함.
- 결정문 채택
 - (이집트) 문단 2 추가: “Stresses the importance for manage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views of staff associations on human resources issues bearing in mind the need to enhance its relationship with the staff”
 - 논의 없이 신규 문단 채택
 - 회원국들은 항소위원회(Appeals Board) 위원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장시간 토론 후, 5명으로 유지하는 원안을 채택함.
 - 세인트루시아의 제안으로 표 안의 subparagraph 5번항 수정안 제안. “unless the appellant objects” 추가됨

의제번호	12.2 (40C/49)
의제제목	직원 급여, 상여 및 혜택
	Staff salaries, allowances and benefits

- 논의 없이 채택.

의제번호	12.3 (40C/5)
의제제목	UN 공동직원연금기금
	UN Joint Staff Pension Fund

- 논의 없이 채택.

의제번호	12.4 (40C/51)
의제제목	의료혜택기금(MBF)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the state of the Medical Benefits Fund (MBF)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 논의 없이 채택.

- 3개 옵저버국 자원 : 세인트 루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의제번호	12.5 (40C/52)
의제제목	2017-2022년도 인적자원관리전략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2017-2022

- (터키) 과소진출 및 미진출국의 이슈가 해결되어야 하며, YP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희망함. 또한, 어제부터 이행된 자동공지 시스템 도입을 환영하며, 집행 이사회 권고안을 적극 이행하는 사무국에 사의를 표함.
- (세인트루시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generic) 직무기술서에 우려를 표함. 또한, 지속적인 사무국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시직(temporary posts)이 크게 증가하여 지리적 배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함.
- 다수 회원국은 지리적 배분의 개선이 부진한 점에 우려를 표함.
- (스페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유네스코와 같은 전문기구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국장급 직무 내 여성이 현저히 적은 점과, 실무진 직무 내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 모두 우려를 표하며 진정한 성평등이 달성되길 희망함.
- (러시아) 유네스코 직원 채용은 무엇보다 우수한 역량에 좌지우지되어야 함. 지

리적 배분이 개선되길 희망하며, 사무국이 41차 총회에 지리적 쿼터 제도를 재고해보기를 제안함. 2020년도 YP 프로그램이 언제 공지될 것인지 질의함.

- (사무국/HRM) 지리적 배분 개선에 있어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회원국의 경험과 다른 UN 기구 등의 경험을 적극 차용하고자 함. D-1 이상 직급에서는 성평등이 거의 달성되었으며, 이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역량이 훌륭한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는 점도 공감하는 바, 헤드헌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재를 물색하고 있음. YP 프로그램은 내년 중반에 공지될 예정임.
- 결의안 채택
 - (세인트루시아) 2개 문단 추가하는 수정안 제출했음.
 - * 신규 문단 2. Invites the DG to report to the EXB at its 209th session about the possibility of subjecting temporary posts, project appointments to geographical distribution
 - * 신규 문단 3. Requests the DG to report to the EXB about the impact of generic post descriptions on the knowledge specialization and expertise of the staff
 - (터키 등) 문단 3에 209차 집행이사회에서 보고(at its 209th session) 문구 추가
 - (모로코) 특히 문화 및 협약 관련 직무 중 공석이 된 specialist 직무의 숫자와 최근 채용된 generalist의 숫자를 문의함.
 - (나이지리아) 신규 문단 2. Invites the Director General to revisit the basis on which the geographical posts are determined 추가. 사무국도 유사한 내용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신규 문단 2, 3 채택됨.
 - (이집트) 신규 문단 4. Invites the DG to make available on the UNESCO website an organigram with the names, functions, and grades of all members of UNESCO workforce and update it regularly
 - 채택됨
 - 결의안 전체 채택됨.

의제번호	6.2 (40C/55)
의제제목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UNESCO's Strategic Transformation

- (DDG) Senior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me을 지역 사무소 대상으로 운영해 매니지먼트 문화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꾀한 바 있음. 현재 전략적 전환은 3번째이자 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Pillar 3 이행을 위해 대화에 기반을 둔 작업 방식을 채택하였음. 지난 7월부터 회원국 및 국가위원회와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음.
- 다수 회원국은 전략적 전환 등에 있어 회원국과의 소통에 노력을 들인 사무국에 사의를 표하며, 전략적 전환의 일환으로 신설된 지원유닛(Support Unit)의 임기가 연장 가능한지 질의함. 특히 영국은 전략적 전환 내 Pillar 2에서의 성과가 매우 의미하다고 생각함을 밝힘. 다수 회원국은 Pillar 3에 대한 성과에 기대를 표명함. 이에 필수적 요소로 최근 구성된 고위급 자문단(High Level Reflection Group)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동 총회 기간동안 유네스코 건물 내에 비치된 새로운 로고가 앞으로 정착될 것인지 질의함.
- 우리 대표(주유네스코 대표부 김원영 서기관)는 전략적 전환 이행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개혁의 결과가 조직의 문화에 스며들도록 지속되길 희망함. Support Unit이 지속된다면 재원이 있는지 질의함. 또한, 고위급 자문단 관련, 사무국은 이 자문단의 작업이 소속그룹보다는 개개인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함을 강조함. 내년 동 그룹의 작업 결과가 상세히 보고되길 희망함.
- 일본은 전략적 전환은 수많은 도전과제를 마주한 조직에 시의적절한 진단이라고 평가함. 경과보고서를 기대하며, 고위급 자문단의 첫 회의가 금주 진행된 점을 환영함. 회원국의 참여 및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는 전략적 전환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사무국은 Support Unit 관련, 현재 성과 평가가 진행 중이며, Pillar 3의 이행도 남아있어 임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힘. 고위급 자문단 회의는 향후 4차례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그들의 국가나 소속을 대표하지 않으며,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힘. 로고 관련, 총회 기간 동안 쓰이는 로고 및 시각 자료는 총회 기간 동안에만 사용될 예정이며, 그 밖의 사용은 반응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위원회 등에 대한 로고 사용 규정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함.
- 다수 회원국은 청년들의 참여를 강조하기도 하였는 바, 전략적 전환국의 Charaf Ahmimed 국장은 전략적 전환 과정 내 청년들의 참여는 사무국의 우

선순위 중 하나였음을 밝히며, UNESCO Youth라는 그룹을 신설해 테마별 그룹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성평등국과 미팅을 갖기도 했다고 설명함. 또한, 이들은 Pillar 3에서도 역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힘.

- 결의안 채택

- (러시아) 문단 1에 “of Pillars 1 and 2” 추가
DDG 및 다수 회원국은 이에 우려를 표함. 남아공, 영국 등은 지지함. 나이지리아 및 방글라데시는 전략적 전환 전반의 성과 보고를 요청하는 문구로 변경 제안. 의장은 “in particular in the implementation of Pillars 1 and 2” 제안. 채택.
- (베네수엘라) 오늘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문단 "take note of the importance of the debate held in the room taking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s and exchanges among Member States" 추가
- (쿠바) "and in particular, with the High Level Reflection Group“ 추가.
- (모로코, 캐나다) 고위급 자문단은 회원국(우리)과 협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 수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함.
- (DDG) 고위급 자문단은 규정상 회원국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DG와 직접 협력하는 바, 자문단과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공식적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힘.
- 나이지리아, 엘살바도르 등의 제안으로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Secretariat, in particular on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High Level Reflection Group"으로 수정됨.
- (이집트) 신규 문단 3 : "Recognizing that the Strategic Transformation process must be driven by Member States, together with the Secretariat" 추가, 논의없이 채택.
- (러시아) 신규 문단 4 : “Notes with regret that the Secretariat has not submitted consolidated substantive proposals on the reform of UNESCO programme activities" 추가, 이집트 등 회원국지지, 핀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 이미 집행이사회 결정문에 있었던 내용이니 반대.
- (DDG) 현 단계에서는 회원국과의 협의 등 진행을 위해 기다리는게 맞다고 봄. 사무국 작업 방식 개선을 위한 50여개의 개선 분야 발굴 및 이행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 Pillar 3 관련,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기엔 시기상조임.
- (대한민국) 동 문단 제거지지.
- 장시간 논의를 통해 “Requests in light of 207EX/5.II.E para. 4, that the Secretariat

submits to the 209th session of the EXB consolidated substantive proposals on the reform of UNESCO programme activities"로 수정 후 채택.

의제번호	3.1 (40C/11, 40C/INF.18) 3.2 (40C/7)
의제제목	3.1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준비 작업 3.2 2022-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41C/5) 준비 작업 3.1 Preparation of the Draft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 (41C/4) 3.2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22-2025 (41C/5)

- 추후 합동위원회 개최 시 상세 정보 제공 예정인 바, 제출된 DR 없음.
- 사무국 대표(BSP)는 동 의제가 차후 국가위원회 총회에서도 논의 예정임을 밝힘. 지역 차원의 국가위원회 협의(consultations)도 기획하고 있으며, 적어도 1개 지역에 대한 일정은 곧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종합 보고서(consolidated report)를 제출 예정이며, 전략적 전환에 대한 보고 진행할 예정임. C/5 준비작업은 C/4 준비작업과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 다수 회원국은 사업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위원회들과 폭넓은 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기한이 짧기도 한 서면조사에 그치지 않고 면대면 협의가 자주 이뤄지길 희망했으며, UN 전반의 개혁과도 맥을 같이하기를 주문함. 영국은 사업계획안 마련 시 지속가능성, 연관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준비되면 좋겠다고 발언했으며, 세인트루시아는 기념해 지정 등의 업무량은 줄이면서도 유네스코의 영향(impact)이 담기는 C/5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스웨덴은 성별 데이터(sex-segregated data)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의제번호	6.1 (40C/29, 40C/INF.16)
의제제목	유네스코 지배기구 거버넌스, 절차 및 작업 방식 Governanc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 결의안 채택

- (그리스&캐나다) 신규 문단 3 제시 : “expressly requests the DG to circulate at least 15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general conference disseminate the draft preliminary calendar of commi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indicating clearly which items will be grouped under the same debate, and the time allocated for each intervention”
- 문구 일부 수정 후 채택
- 결의안 채택.



제6차 국가위원회 총회 결과 보고

1. 신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역량강화 워크숍
2. 제6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V

국가위원회 관련 회의 결과 보고

1 신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역량강화 워크숍

● 개요

- 회의명 : 신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1월 14일(목) / 9:30-12:30; 15:3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X

● 요지

- 유네스코는 10여년 만에 신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국가위원회의 기본 기능, 유네스코 현장 사무소의 구조, 참여 프로그램 등 유네스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 등에 대한 발표를 맡아 진행함.

● 상세 내용

Mr. Firmin Matoko (ADG/PAX) 환영사

Welcoming remarks by Mr Firmin Edouard Matoko,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ADG/PAX)

-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우선순위를 여전히 중시하지만, 두 섹터를 합침으로서 다양한 지역 간, 그리고 국가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음. 유네스코는 전략적 전환을 통해 개혁을 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하는 과정에 슬로베니아와 한국 등이 개최한 국가위원회 지역 총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오늘 이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신임 사무총장들은 이미 유네스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위원회의 기여는 유네스코에 매우 중요하며, 국가위원회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사무총장들에게 감사드리며, 금번 총회에서 다뤄질 유네스코 클럽 관련 규정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설문 조사를 통해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국가위원회 유닛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위원회의 지위, 구조와 기능: 기초 및 운영 역량

Status, Structures and Functions of National Commissions: Fundamentals and Operational Capacities

- (Mr. Genc Seiti 국장 기조발언) 이번 워크숍은 재정상의 이유로 10년 만에 재개되었는데, 국가위원회별 구조, 재정 등을 알아보고,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위원회는 재정 자원 동원에 협력할 때도 있는데, 중국위원회 도움으로 성사된 꾸리에 재발간이 그 좋은 예입니다. 2011년도에는 첫 국가위원회 관련 평가 조사가 전격 진행되었고, 2012-2013년에는 삼자 TF가 운영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국가위원회 간 구조나 정부와의 관계/소속 등은 다양하지만, 이상적으로는 1인의 사무총장과, 4-5명의 섹터별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위원회 활동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고, 적시에 관련 정부 부처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국가위원회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위원회에 감사합니다. 사무국은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의 파리 본부 방문 시 사전에 섹터별 담당자와의 간담회 주선, 온라인 트레이닝 제공 등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 (발표)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독립적 국가위원회입니다. 동 법률 하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60인의 위원들과 사무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질의응답

- (호주) 재작년 첫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해주셔서 감사했음.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아태지역 협력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 (김광호 사무총장) 내년 개최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음.
- (질문) SIDS 국가같이 작은 국가들의 국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사무처 구조나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광호 사무총장) 공공기관 대표나 전문가를 포함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한위는 운이 좋게도 상당한 규모의 직원 수를 가지고 있지만, 섹터별로 고루 갖출 필요가 있음.
- (사무국 대표)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자리임. 나머지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사무소의 경험에 비추보면 유네스코의 활동 분야별로 담당자가 채용되는 것이 가장 좋음.
- (스리랑카) SDG 4-교육 2030 네트워크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 설명이 궁금함.
- (김광호 사무총장) 대한민국 교육부는 한위를 SDG 4 - 교육 2030 포컬 포인트로 위임하여 영유아교육, 교육과정, TVET 등을 담당하는 국내 기관들이 모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세미나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해 국내 SDG4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
- (질문) 한위 총회의 구성은?
- (김광호 사무총장) 한위 총회는 1년에 1회 소집되며,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분과위는 연 2회 소집되어 상세 내용을 승인하게 됨. 부위원장에 다양한 정부 부처 대표가 포함되어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유네스코 네트워크 전반과의 협력에 있어 국가위원회의 역할

National Commissions' Roles in Cooperation with Wider UNESCO Family

- (발표) 슬로베니아위원회 사무총장

- 유네스코는 국제적 공조가 약한 분야에서의 정부간 국제기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국가 차원에서 유네스코의 다양한 파트너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좋은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 국가위원회의 역할 중 민-관(public-private) 파트너십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임.

- (발표) 쿠라사우위원회 사무총장

- 쿠라사우 위원회는 교육 분야에서 유네스코 학교를 통해 괴롭힘(bullying) 방지 활동, digital book world heritage 발간 (2018) 등 실시하고 있음. 인문사회 과학 분야 관련, 청소년의 역량 및 성평등 등 이슈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기후 변화교육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문화 관련,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국가 수준의 유네스코 가시성 : 유네스코 명칭 및 로고 등 공공정보 관련 국가위원회의 역할

UNESCO Visibility at National Level : the Roles of National Commissions in Public Information including the Protection of UNESCO's Name and Logo

- Mr. Matthieu Guevel(DIR/DPI) 발표

-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의 홍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함. 시민사회와 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이 증대되어야 하며, ASPnet 등 다양한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 또한,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통해 다양성 이슈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유네스코 네트워크는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의 유네스코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온라인 상의 소통도 잘 활용하고자 함. 국가위원회는 현장에서의 최종 결정자인 사명을 가지고 있음. 유네스코의 이념 및 가치 전달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라는 브랜드 가치 활용하여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Ms Monica Crutescu (DPI) 발표

- 역사적으로 유네스코 초기에는 유럽 중심의 국가위원회 참여 활동이 있었고, 1960년대 들어서 더 다양한 지역적 안배가 있었음.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기능과 역할, 활동을 알리는 다양한 참고 자료 및 가이드라인, 핸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음. 도전과제로는 국가위 활동의 지역적 안배, 성평등, 유네스코 우선순위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임. 국가위원회의 역할의 한 예로 기념일을 선정하고 대중에게 안내하며, 관련 회의를 통해 이러한 기념일을 홍보하는 것임. 유네스코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별, 지역별로 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원국이 되는 과정에서 회원국은 다양한 기념일에 대해서 보고해야 함.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unesco.int에서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공유 가능함.

유네스코 현장 사무소 구조

Structure of UNESCO's Field Presence

- 지역사무소 대표단 기조발표
 - 아프리카 지역에는 multi-sectorial regional offices를 2014년부터 운영 중임. 그 외 지역에는 기존의 구조가 아직 운행 중인데, thematic regional offices, cluster (multi-country) offices, national offices의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53개국에 오피스가 있으며, 28개국에 antennae/desks 운영 중임. Antennae는 주로 cluster office 산하에 있음. Cluster 및 national office는 모두 파리 본부에 직접 보고하고 있음. Thematic offices는 사업에 대한 thematic coordination을 담당하고 있음. 올 봄 집행이사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현장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며, 전략적 전환 및 UN 전반의 개혁의 맥에 맞춰 마련하고자 함.
- (발표) Dr. Evangeline Njoka, 케냐위원회 사무총장
 - 196EX/5 Part III Annex의 가이드라인이 유용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나, 채택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업데이트가 필요함. 케냐위원회는 유네스코 현장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이행하고 있음. 케냐위원회는 현장 사무소 및 케냐 교육부와 함께 (구) UNDAF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동아프리카 현장 사무소는 케냐위원회의 전략적 계획 수립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위원회도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사무소와 적극 협의할 것을 장려함. 또한,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회의 개최, 예산 공유, 상호 회의 참가, 로고 병기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음. 지역 사무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지역 사무소 역시 재정 및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는 바, 사무국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길 희망함.

참여 프로그램(PP) : 규칙과 공통 이슈

Participation Programme : Rules and Common Issues

- Mr. Stoyan Bantchev 기조발표
 - 아프리카 참여프로그램에 11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향후 온라인

제출로 개선해 시간을 단축하고 제출의 증빙을 남길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동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이드라인 등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자료도 공유해 두고자 함. 이 과정에서 국가위원회는 조정 역할을 함. 국가별 최대 7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 오피스 등의 현지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음. 아프리카 및 SIDS 외 지역의 지원서 제출 기한은 8월이 아닌 5월로 조정되었음. 지원받은 돈은 특별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해당 2개년(biennium) 안에 집행 및 소진되어야 함. 향후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 과정에서 기존 계획과는 다른 예산 항목 변경 등 변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 Presiden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발표
- 유네스코는 NGO 협력을 중시해왔으며, 2011년 채택된 NGO 파트너십 가이드라인은 유네스코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NGO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NGO들은 consultative status 혹은 associated status를 가지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NGO 회의에서 모이고 있음. NGO 협력은 양방향으로 진행되며, 유네스코-회원국-시민사회 간 협력을 증진해나가고자 함.

Mr. Firmin Matoko (ADG/PAX) 폐회사

Closing speech by Mr Firmin Edouard Matoko,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ADG/PAX)

- 참여 프로그램은 여러 국가위원회와 NGO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함. PAX 섹터 역시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람. 신입 사무총장들이 유네스코 및 작업 방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람. 전략적 전환의 일환으로 국가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해주고 다양하게 참여해주길 희망함.

2 제6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 개요

- 회의명 : 제6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총회(6th Interregional Meeting of National Commissions)
-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금) / 9:00-12:30; 14:30-17:30 / 유네스코본부 Room XII
 - 11월 16일(토) / 9:00-12:30; 14:30-17:30 / 유네스코본부 Room XII

● 요지

- 유네스코 주요 전략 및 정책 수립 과정 내 국가위원회의 역할 정립 필요성 강조
- △UN개혁,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중기전략(C/4) 수립 등의 과정에 국가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별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회원국 정부와 유네스코 사무국에 공히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됨.
- 유네스코 글로벌 우선전략의 실효성 강조
- 기구의 '아프리카 우선' 및 '성평등' 글로벌 우선전략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가위원회가 공감하였으나, 동 글로벌 우선전략이 회원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아울러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군소도서개발도상국 우선전략'의 신규 도입에 대한 일부 국가위원회의 제안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 국가위원회 외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
- 차기 7차 총회는 2020년 5월 25-29일 스위스(루가노)에서 개최 예정

● 논의 의제 및 일정

2019년 11월 15일(금)

- 개회
- 전략적 전환 및 2020-2029년도 중기전략(41C/4) 협의
- 국가 수준에서 유네스코의 입지

2019년 11월 16일(토)

- 제7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스위스 루가노) 소개
- 국가 수준에서 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
- 국가위원회 네트워크를 통한 모범사례와 이니셔티브 공유
- 폐회

● 의장단 선출

- 의장 : 유네스코이집트위원회
- 부의장 : 유네스코슬로베니아위원회, 유네스코베트남위원회
- 라포터 : 유네스코세인트루시아위원회, 유네스코나미비아위원회

● 상세 내용

세션	1
주제	전략적 전환 및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협의 First Dialogue with the National Commissions about Strategic Transformation and Reflection on the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

- 사무국(Jean-Yves Le Saux 전략기획국장)이 세션의 메인 취지를 설명함.
- 지난 2019년 7월 및 10월 ‘전략적 전환’에 대해 사무국과 상주대표부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Pillar 3, 분야별 프로그램, 아프리카 우선전략, 성평등, 다부문 주제 등을 협의하였음.)
- 당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일 국가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차기 중기전략(41 C/4)에 반영하고자 함.
- 발표 1 (아프리카 우선순위) : Mr. Firmin Edouard Matoko (ADG/PAX)
- 2011부터 Operational Strategy for Priority Africa 수립을 통해 6개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아프리카 우선전략을 단지 유네스코 내부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밖에서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유네스코와 같은 다자협력 기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양자 협력 계기에 어떻게 아프리카 우선전략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의견을 중기전략에 반영하고자 함.

- 발표 2 (성평등 우선순위) : Ms. Gülser Corat (DIR/GE)

-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여러 부문에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임. 교육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소녀들이 학교밖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약 3%의 여성만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IT 부문을 전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문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실례로 여성 언론인 3명 중 2명은 업무 수행 시 협박을 받는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가 있음. 성평등은 17개 SDGs에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인바, 유네스코가 기구의 글로벌 우선전략으로 '성평등'을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자평해 볼 수 있음.

- 국가위원회 토론

- (케냐)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성평등' 관련 활동이 반영되기를 희망함. 유네스코케냐위원회는 아프리카 지역사무소와 소녀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와 규모는 제한적임. 특히, 조혼, 여성 위생시설 등과 관련하여 소녀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협의하고자 함. 기초교육 수준에서부터 소녀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프랑스) 사무국과 집행이사회가 전략적 전환 과정에서 국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한 점에 사의를 표함.
- (터키) 유네스코터키위원회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부문의 여학생 참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International Rising Talents 상을 수상할 수 있었음.
- (우간다) 유네스코 아프리카 우선전략이 추상적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어야 함. 독일 국가위원회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활동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독일) 국가위원회는 모두 자국 내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바, 국가위원회를 통해 가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기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함. 또한, 아프리카 전략은 우간다 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사무국을 넘어 보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아프리카 우선전략이 실제로 기능하는 구체적 전략이 될 수 있어야 함.
- (러시아) 전략적 전환의 취지를 적극 지지함. 유네스코가 활동함에 있어서 다른 UN 기구들과의 중복 문제에 주의해야 함. 국가위원회는 UN 시스템 내 유일하고 독특한

조직인바 유네스코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국가위원회의 보다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 또한, MOPAN 보고서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유네스코의 모든 활동성과에 대해 보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함.

- (슬로베니아) 국가위원회가 독특한 입지에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그만큼 국별 국가위원회의 역량 등이 상이하다는 점은 항상 언급되고 있음. 따라서 추후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중앙아프리카) 아프리카 우선전략과 관련하여, 소녀들의 교육 접근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단 소녀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 접근권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함. 중앙아프리카에는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박탈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함. 다양한 ODA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함.
- (사무국) 아프리카 우선전략이 사무국 수준의 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필수적임. 전략적 전환에 대한 국별협의(national consultation) 절차가 진행될바, 해당 결과가 차기 중기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또한, 조혼, 원치 않는 임신 등은 교육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동 부문에서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대상 STEM 부문에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발표 3 (자연과학) : Ms. Shamila Nair-Bedouelle (ADG/SC)

-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자연과학의 중요성을 언급함. 오늘날 자연과학은 위생, 물, 교육 등 모든 SDGs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모든 목표 달성의 전제가 되고 있음. △기후변화,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훼손, △물 위기 등 자연과학 부문 내 국제사회 공동의 도전요소에 직면해 있는바, 과학을 다루는 유네스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에 유네스코는 국가 간 기술격차(technology gap)를 줄이기 위해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평화를 위한 외교와 같이, 과학 부문에서 국가 간 다양한 협력과 교류가 필수적임.
- ※ 현재 △69 카테고리 2센터, △203개 UNESCO chairs, △124개국 701 생물권보전지역, △IOC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간위원회가 존재하는 바, 유네스코의 광범위한 과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국이 과학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SDGs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발표 4 (IOC) : Mr. Vladimir Ryabinin (ADG/IOC)

- 2015년 해양(ocean)이 SDGs에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으나, 그 이후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UN 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해양 담당 기구로서, 전 세계 해양 상황의 심각성을 적극 보고하고 있음. 해양 과학은 '기후변화' 이슈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 해양은 탄소를 흡입함으로써 지구의 탄소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점차 해양의 탄소흡입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IOC는 실시간으로 해양 관련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IOC는 국별 국내기구를 두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위원회가 자국 내 국내기구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의 경우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가 IOC의 국내 기구로 활동 중임.

- 토론

- (피지) 과학 교육에서 유네스코가 커리큘럼 제공 등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함. 아프리카 우선 전략뿐만 아니라 '군소도서개도국' 우선 전략 또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함.
- (이탈리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노력 중임.
- (쿠바) 교육 부문에서 '남남/남북 협력' 등 상호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진전이 있기를 희망함. 또한, '군소도서개도국' 우선 전략이 수립되기를 희망함.
- (영국)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과학, 해양, 성평등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분야임. 반면, 그 모든 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전 세계 199개 국가위원회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유지가 필요함. SDGs 관련 유네스코의 다양한 기여와 활동에 대한 '스토리 텔링'을 통해 기구 활동의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무국이 어떻게 국가위원회의 조정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문의하고자 함.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션, △명확한 메시지 제시는 기구의 가시성 제고와 사람들로부터의 공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

- (세르비아) 모든 국가위원회가 ‘전략적 전환’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치고, 현재와 같은 총회 계기에 협의할 것을 제안함.
- (사무국) 국가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영국의 발언 내용은 바로 사무국 회원국관계부서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음(Jean-Yves Le Saux). ‘군소도서개도국’ 우선 전략 수립 제안 관련, 해당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지역(sub-regional) 프로젝트의 고안을 요청하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함. 현 단계에서는 유네스코의 지정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ADG/SC). 또한, 해양 커뮤니티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양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바임(ADG/IOC).
- (자메이카) ‘군소도서개도국’ 글로벌 우선전략 수립 제안을 적극 지지함.
- (케냐) 아프리카 지역 해양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임.
- (포르투갈)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영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함.
- (불가리아) ADG/SC가 ‘과학외교’에 대해 언급해 준 데 사의를 표함. 유네스코가 추후 과학외교 부문에 더욱 앞장 서야 할 것이라 생각함.
-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는 ‘국가 젠더정책’ 수립 후 동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성평등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헝가리) 금번 사전질의(questionnaire) 답변을 초안으로 차기 국가위 총회 계기에 주요 이슈(향후 유네스코의 기회 및 도전요소, 2030의제와 유네스코, 글로벌 우선전략, UN개혁 참여 등)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램.

세션	2
주제	전략적 전환 및 2022-2029년도 중기전략(41C/4) 협의 (계속) First Dialogue with the National Commissions about Strategic Transformation and Reflection on the Medium-Term Strategy for 2022-2029 (Continued)

- 발표 5 (교육) : Ms. Stefania Giannini (ADG/ED)

- 유네스코가 지난 6월, G7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교육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음. 유네스코는 SDG 4번 목표 달성을 위해, 기구의 2개 글로벌 우선순위인 ‘아프리카’와 ‘성평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여성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옹호활동(advocacy), 지식공

유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고, 아프리카 우선 전략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교사 역량강화, 문해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TVET) 및 고등교육 부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SDG 4.7 세부목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 시민교육’을 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발표 6 (문화) : Mr. Ernesto Ottone Ramirez (ADG/CLT)
 -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주요 (다부문) 이슈를 소개함.
 - ※ 문화 다양성 보호, 사회 통합, 분쟁 완화 및 자연재해 대응, 문화 접근(access to culture), 창조경제(development of creative economy), 협약의 기능 존중, 문화와 기후변화, 아프리카 내 문화산업 육성, 문화와 정체성
 - SDG 4, 11, 16번 목표 관련, 문화 다양성, 다원주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어떠한 프로그램이 보장되어야 할지 질문을 제기함.
- 발표 7 (인문사회과학) : Ms. Nada Al-Nashif (ADG/SHS)
 - 과학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 외에도 윤리적 부문에 대한 더 많은 집중과 관심이 필요함. 유네스코는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 과학기술 및 기후변화 등과 같은 공동의 도전요소에 대한 윤리적 측면(Ethical Reflection), 청년, 스포츠와 같은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UN 기구인바, 전 세계 차원의 기여와 조력(global commitments)을 요청함.
- 발표 8 (커뮤니케이션·정보) : Mr. Moez Chakchouk (ADG/CI)
 - 커뮤니케이션·정보 부문은 유네스코의 다른 모든 부문과 연계되는 핵심적인 분야임. CI 부문에서는 특히 언론인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 접근권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일반의 접근권 강화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CI는 ICT와의 적극적인 연계도 시도하고 있음. 2020년부터는 다른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ICT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개도국 내 ‘인터넷’ 보급은 국가 및 사회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물리적인 인터넷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데이터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음. 미디어와 정보문해(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는 다부문 주제로서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이 모두 연계되어 cross-sectoral 접근을 요하는 분야임.

- 토론

- (네덜란드) 2020.4. 네덜란드는 '세계 언론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바, 모든 국가위원회를 초청하고자 함. 국가위원회 협력과 관심을 통해서만 동 기념일을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기념할 수 있음.
- (터키) 터키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가위원회가 동 협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음.
- (핀란드) 표현의 자유는 단지 언론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모든 활동과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연계되는 가치임.
- (에스토니아) 다양한 유네스코 네트워크 중에서도 MAB와 ASPnet이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함. 에스토니아는 평화롭고 통합적인 사회 구축에 있어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년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통가) 피지가 언급한 바와 같이, C/4 및 C/5 수립 시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해 더욱 많이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함. 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무국보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더욱 잘 기획할 수 있으므로 역내 국가들의 목소리가 유네스코 전략 수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독일) 모든 프로그램 부문에서 부문별 전문적인 발표가 각각 진행되었음. 하지만 IOC가 교육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IT 부문이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지와 같은 '글로벌'한 접근은 부족했다고 생각함. '부문 간 연계(intersectoral)전략'이 먼저 고려·제시된 이후에 분야별 개별 전략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세션	3
주제	국가 수준에서 유네스코의 입지
	Positioning UNESCO at country level

- 발표 1 (UN개혁) : Mr. Eliot Minchenberg (Chief of UN Section, Division of External Relations, Sector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 신규 '상주 코디네이터 시스템(RC : Resident Coordinator)' 도입과 'UN 지속가능발전협력 프레임워크(UNSDCF)'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RC는 2019년 부로 UN 사무총장의 직할 대상으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도 기구의 권능 분야에 대한 안내지침(guidance)을 보완하였음. 또한, 개발 '지원'에 집중하던 'UN 개발지원 프레임워크(UNDAF)'가 'UNSDCF'로 전환되었음을 소개함.

- 예산과 관련하여, 'RC 시스템 조정을 위한 1% 추가 부담금(levy)'이 UN시스템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네스코의 입장에서는 기구의 부담금을 추가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소개함.
 - UNSDCF 시범시행 국가(roll-out country) 명단을 소개함 : 앙골라, 콜롬비아, 콩고, 쿠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라크, 리베리아, 말리, 멕시코, 파라과이, 시에라리온, 남아공, 시리아, DR콩고, 동티모르
- 발표 2 (UN개혁 과정 내 국가위 역할) : Ms. Ann Theresa Ndong Jatta (Director of Multi-Sectoral Regional Office for Eastern Africa, Nairobi)
- UN개혁은 UN이 모든 계획을 수립한 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UN 시스템 내 여러 기구와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대화의 과정이 되어야함. 그 과정에서 국가위원회가 기여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 정부 차원에서 활동 추진 시 여러 부처 간 또는 부문 간 예산 확보의 경쟁 등이 존재하므로 국가 차원의 유네스코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그 과정에서 국가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려해 보아야 함. 또한, 개도국 국가위원회가 단지 유네스코 참여사업(Participation Programme) 전담 조직에서 더 나아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함. '지역 협력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국가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국가위원회는 국별 유네스코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발표 3 (지역협력과 국가위원회의 역할) : Ms. Claudia Uribe (Director of the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Representative in Chile)
- (유네스코 석좌, 유네스코학교, 과학클럽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소개함. UN개혁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역할 강화에 국가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예를 들어, 유네스코 지역 사무소가 부재한 곳에서 국가위원회가 UN개혁 관련 유네스코의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지역 차원의 공동 이슈에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유네스코 활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국가위원회 토론

- (세네갈) UN개혁이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무국에 문의함.
- (영국) UN개혁과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과정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기여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실제로 사무총장(DG)이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상기 전략 등에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의함.
- (짐바브웨) UNSDCF 시범시행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함.
- (사무국) UN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 UN개혁과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네트워크 개혁은 별개의 것임. 하지만 UN개혁과 연계하여 보았을 때,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개혁이 UN개혁의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UN개혁 과정에서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와 회원국 정부 간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또한, UN개혁은 UN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 사무총장(DG)이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기여를 명확하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사무총장이 유네스코의 모든 활동 영역에 UN개혁을 연계하려 노력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함. (Eliot Minchenberg)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네스코케냐위원회는 지역사무소보다 더 큰 규모로 활동하고 있음. 모든 국가위원회가 자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Ann Theresa Ndong Jatta)

세션	특별세션
주제	제7차 루가노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소개
	Special Session on Preparations for the 7th Interregional Meeting of National Commissions (Lugano, Switzerland, 25-29 May 2020)

- 스위스 사무총장이 차기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계획을 소개함.

- 회의 개요 소개 : 2020.5.25-29, 스위스 루가노
- 199개 국가위원회에서 최소 1명, 최대 3명을 초대하며 (최대 3명에 대해) 체제 지원
- 여비는 참가 국가위별 자체 부담 원칙

세션	4
주제	국가 수준에서 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
	Role of National Commissions in Strengthening UNESCO's Partnerships at Country Level

- 발표 1 (파트너십 전략 소개-사무국) : Mr. Mohamed Djelid (Deputy Director of the Bureau of Strategic Planning)
 - 전략적 전환 Pillar 2에 해당하는 ‘파트너십 전략’을 소개하고자 함. 파트너십 전략은 단지 자원 조달을 위한 전략이 아님을 강조함. 파트너십 전략은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청년의 참여 독려, △유네스코의 자원 조달, △공여자와 파트너 협의 등을 주로 다루고 있음.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국가위원회 연계 방안을 소개함. 첫째, 국가위원회는 국별 공공·민간 영역 내 적절한 파트너를 모색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둘째, 국가위원회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파트너 포럼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별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구축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입지 설정을 지원할 수 있음. 셋째, 국가위원회는 국별 민간 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가위원회가 일반대중 및 각종 재단(individuals and Foundations) 대상 후원금 모금 기회를 발굴하는 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발표 2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지역사무소의 시각) : Mrs. Esther Kuisch-Laroche (Director of UNESCO in Saint José)
 - 제1차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지역 파트너스 포럼(First Regional Partners Forum LAC)’의 주요 결과를 소개함.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파트너십 규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또한, 국가위원회는 자국 내 유네스코의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유네스코의 활동과 주요 목표 등을 국별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에 안내할 수 있음.

- 발표 3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시각) : Mr. Sébastien Goupil(Secretary-General of the Canad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유네스코캐나다위원회는 파트너십 전략 차원에서 ‘청년’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예를 들어, 국가위원회가 청년대표와 적극 협력하면서, (청년대표들의 주도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음. 청년들은 사회발전, 세계시민의식 함양, 청년 주도의 청년활동 기획 등에 기여했음.
 - 주요 교훈을 다음과 같이 공유함.
 - 1) 청년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
 - 2) (청년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프로그램 기획
 - 3) 국가위원회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내 청년의 시각 중점 반영
 - 4) 청년 리더 양성에 투자

- 발표 4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시각) : Mr. Everton Hannam (Secretary-General of the Jamaic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2103년에 동 전략이 최초로 소개된 이래 수많은 협의가 진행되었음.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와 회원국 간 협력관계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 전략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함. 하지만 국가위원회의 구조가 국별로 모두 상이하고, 회원국 정부가 해당 국가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함. 또한, 통합 파트너십 전략(CPS : Comprehensive Partnership Strategy)에 참여하는 국가위원회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이 제한적임. SDGs 달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트너십 전략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토론
- (케냐) 유네스코케냐위원회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전략' 차원에서 청년의 참여 강화에 주목해 왔음. 유네스코케냐위원회는 케냐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바, 가능한 선에서 다양한 청년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부룬디) 유네스코 사무국, 국가위원회, 지역사무소 3자 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문의함.
- (덴마크) 국가위원회가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되기를 희망함.
- (수리남) 유네스코수리남위원회는 1인 사무처 체제로 운영되는 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위원회임. 수리남에는 다양한 부족과 토착언어가 존재하는바, 국내의 다양한 클럽과의 협약 체결 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하고자 함.
- (우간다) 유네스코우간다위원회는 국가위원회의 예산으로 연례 '청년 위원회 (Youth Council)'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청년 활동 수행을 통해 청년들이 유네스코 활동에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반면, 모든 청년활동을 국가위원회가 긴밀히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한계도 아직 존재하기도 함.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역시 유네스코 네트워크 내 청년활동 연계를 지지함. 반면, 청년활동에 있어서 '유네스코 로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사무국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사무국)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유네스코 전체를 강화하는 '원-원전략'이라는 점을 언급하고자 함. 많은 국가위원회 주최 회의, 포럼

제기에 청년의 참여 및 발언 기회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사의를 표함. 사무국은 국가위원회 활동의 풍부한 성과를 평가하지만,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 유네스코의 가치는 불변이지만, 업무 및 활동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지역사무소와 국가위원회 간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간단히 답변하자면 두 조직이 ‘협력관계’에 있다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는 너무 단순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두 조직은 유네스코의 틀 내에서 상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사실임.

세 선	5
주 제	국가위원회 네트워크를 통한 모범사례와 이니셔티브 공유
	Sharing Good Practices and Initiatives across the network of National Commissions

- 발표 1 (우간다) : Ms. Rosie Agoi (Secretary-General of the Ugand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유네스코우간다위원회가 개최한 우간다 내 관계부처와의 회의(UNESCO Kampala meeting)의 주요 결과를 소개함. 동 해외 개최 이후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회의 공동개최 계획 수립, △정부 관계부처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의 성과를 달성함. 차기 회의 일정(2020.1.)을 소개함. 차기 회의에서는 유네스코 참여사업(PP: Participation Programme) 결과보고서 검토 및 신규 사업 신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임.
- 발표 2 (인도네시아) : Mr. Ananto Kusuma Seta (Assistan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of Indonesia)
 - 인도네시아가 발간한「2013 창조경제 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 2013)」,「인도네시아 문화 발전 인덱스 2018」등의 주요내용과 함께 ‘2021 제3차 세계 문화 포럼 준비회의(Road to the 3rd World Culture Forum 2021)’ 개최 결과를 소개함.
- 발표 3 (레바논) : Ms. Tala Zein (Secretary-General of the Leba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유네스코레바논위원회가 1948년 창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청년’ 이슈에 집중

해 왔음을 소개함. 또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 활동 내용을 소개함. UN의 우선순위와 SDGs의 기본 개념 등을 국내적으로 알리는 ‘UN 인식제고 활동(UN Aware Certificate)’을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 발표 4 (프랑스) : Mr. Alexandre Navarro (Secretary-General of the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2018년에 유네스코프랑스위원회는 국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1차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마련한 후 사무국의 의견을 추가하였음. 동 보고서는 차기 (루가노) 국가위원회 총회 이전에 발간할 예정임. ‘프랑스-루마니아 2019’라는 이름하에 양 국가위원회 간 협력 활동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에 대한 여름 계절학교 (l'Université d'été sur les bonnes pratiques du développement durable), △양국 유네스코 기념일 상호지지, △루마니아 유네스코 참여사업 지원, △공동 전시회 등의 사례를 소개함.
- 발표 5 (라트비아) : Ms. Baiba Molnika (Secretary-General of the Latv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국내 차원의 SDGs 홍보 활동을 소개함. 국내 유네스코학교, 석좌, 여성과학자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SDGs와 유네스코의 이상 및 주요 사업활동을 홍보하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라트비아 내 세계유산 지정지역과 청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음을 소개함.
- 발표 6 (퀴라소) : Ms. Marva Browne (Secretary-General of the Curaçao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국내 SDGs 홍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옹호활동 내역을 소개함. 퀴라소 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한 언론인 대상 SDGs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발표 7 (영국) : Prof. Kiran Jude Fernandes (Vice Chairman and Director, the United Kingdom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Wider Value plus”라는 제목의 유네스코 지정사업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영국 내 다양한 유네스코 지정지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유네스코 지정지역이 해당 지역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음. 동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은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발간 예정임.

※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평가함. 아울러, 동 연구는 (일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재정기여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발적 활동을 통해 수행된바, 매우 적은 예산으로 완료되었음을 언급함.

- 발표 8 (한국) : 김형건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기획·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공동연구’ 사업 구상 및 주요계획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국가위원회의 참여를 독려함.

※ 발표 이후 유네스코몽골위원회 및 유네스코뉴질랜드위원회에서 동 연구사업에 관심을 표명함.

- 토론

- (말라위, 에스와티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인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학습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및 직업기술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국 내 교육 기회 확대 및 SDG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사의를 표함.

- Mr. Firmin Edouard Matoko (ADG/PAX) 폐회사

- 유네스코의 주요 전략, 활동, 사업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해 준 모든 국가위원회에 사의를 포함.

● 관찰 및 평가

- 말라위, 에스와티니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아프리카 교육 부문 협력사업(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는 등 동 사업을 ‘국가위원회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함.

- 유네스코 내 국가위원회의 입지 및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나 동시에 국별 국가위원회의 규모 및 역량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한계에 대한 평가도 관찰됨.

- 유네스코의 주요 전략 수립 및 정책 추진 과정에 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 조직의

일부로 적극 참여하고, 국별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기구의 가시성을 제고하며, 지역사무소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역내 유네스코를 대표하는 현장 사무소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반면, 국가위원회가 1인 사무소 체제 등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미흡한 개도국 국가위원회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 수행보다는 역량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각 국가위원회별 목표와 입장의 차이가 노정됨.
- 국가위원회 간 규모 및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총회 계기 국가위원회 회의 강화, △사무국 내 국가위원회 전담부서(National Commissions Unit) 재구성 등 유네스코 내 국가위원회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유네스코 회원국 간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활성화에 대한 사무국의 요청 확인
 - 사무국은 (△69개 카테고리 2센터, △203개 유네스코 석좌, △124개국 701개 생물권보전지역, △IOC와 같은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등) 전 세계 다양한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회원국 간 ‘과학외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기구의 주요목표 달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 유네스코 관할 분야가 광범위한바, 국별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부문별 전문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위원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외 관련기관의 부문별 주요 이슈 동향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위원회 총회 운영의 개선사항 관찰 :
 - 국가위원회 총회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인바, 전차 회의 주요 협의사항 및 후속 조치 등을 차기 회의 계기에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복적인 토론을 방지하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위원회 회의는 총회, 지역 및 소지역 회의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지역별 국가위원회 협의사항이 총회 계기에 보다 단계적·유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이슈 관련 국가위원회 공동 의견을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 선거 결과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3.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V

주요 선거 결과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 일시 : 11월 20일(수), 지명위원회(Nominations Committee)
- 선거 결과 :
 - 그룹 I(서유럽·북미) :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
 - 그룹 II(동유럽) : 세르비아, 헝가리, 러시아, 폴란드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우루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 그룹 V(a)(아프리카) : 가나, 세네갈, 케냐, 베냉, 나미비아, 토고, 기니, 콩고민주공화국
 - 그룹 V(b)(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UAE, 튀니지,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 일시 : 11월 21일(목)
- 2019년 한국 선출 위원회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 임기 2019-2021년
 -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 임기 2019-2023년
 - 인간과생물권계획(MAB) : 임기 2019-2023년
 -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 임기 2019-2023년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 그룹 II(동유럽) : 아르메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세인트루시아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대한민국, 중국, 일본, 필리핀
 - 그룹 V(a)(아프리카) :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 그룹 V(b)(중동) : 바레인, 레바논, 팔레스타인, 카타르
- 본부위원회(Headquarters Committe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 캐나다, 프랑스
 - 그룹 II(동유럽) : 체코공화국, 리투아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세인트루시아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그룹 V(a)(아프리카) : 부룬디, 카메룬, 나이지리아
 - 그룹 V(b)(중동) : 바레인
-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 포르투갈, 스위스
 - 그룹 II(동유럽) : 아르메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에콰도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중국
 - 그룹 V(a)(아프리카) : 앙골라
 - 그룹 V(b)(중동) : 쿠웨이트
- 모두를 위한 정보 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 벨기에
 - 그룹 II(동유럽) : 해당 없음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그레나다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대한민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 코트디부아르, 가나, 마다가스카르
 - 그룹 V(b)(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 국제 인간과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 신규 이사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 그룹 II(동유럽):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페루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몰디브
 - 그룹 V(a)(아프리카):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 그룹 V(b)(중동): 모로코

- 국제수문학사업(IHP) 정부간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 그룹 II(동유럽): 몰도바, 러시아, 슬로바키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마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중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 그룹 V(a)(아프리카): 콩고, 나이지리아, 세네갈, 우간다
 - 그룹 V(b)(중동):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수단

- 불법소유문화재 반환 촉진위원회(ICPRCP)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 그룹 II(동유럽): 몰도바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르헨티나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일본, 인도
 - 그룹 V(a)(아프리카): 카메룬, 기니, 잠비아
 - 그룹 V(b)(중동): 이집트

- 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위원회(IPDC)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터키
 - 그룹 II(동유럽):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말레이시아
 - 그룹 V(a)(아프리카) :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잠비아
 - 그룹 V(b)(중동) : 레바논, 튀니지
-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 그룹 II(동유럽) : 크로아티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쿠바, 베네수엘라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방글라데시, 몽골,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 보츠와나, 콩고, 케냐, 우간다
 - 그룹 V(b)(중동) : 모리타니아, 오만
-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 오스트리아, 벨기에
 - 그룹 II(동유럽) : 러시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대한민국, 이란, 일본, 스리랑카,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토고
 - 그룹 V(b)(중동) : 요르단, 리비아, 모리타니아, 수단
- 체육교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CIGEPS)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 오스트리아
 - 그룹 II(동유럽) :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쿠바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 인도
 - 그룹 V(a)(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그룹 V(b)(중동) : 해당 없음

- 유네스코 통계국(UIS) 운영이사회
 - 그룹 I(서유럽·북미): 해당 없음
 - 그룹 II(동유럽): Mr. Georgy Oksenoyt (러시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Mr. Juan Daniel Oviedo (콜롬비아)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Mr. Bin Yang (중국)
 - 그룹 V(a)(아프리카): Mr. Andrew Rasugu Otachi Rieche (케냐)
 - 그룹 V(b)(중동): 해당 없음

- 교육 내 차별협약 당사국 분쟁 조정 위원회(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responsible for seeking the settlement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Mr. Ismail Selim (이집트)

- Nubia
 - 그룹 I(서유럽·북미): 해당 없음
 - 그룹 II(동유럽): 체코 공화국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해당 없음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해당 없음
 - 그룹 V(a)(아프리카): 카메룬, 니제르
 - 그룹 V(b)(중동): 이집트, 수단

3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

- 2017-2021년 임기
 - 그룹 I(서유럽·북미): 노르웨이, 스페인
 - 그룹 II(동유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헝가리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과테말라, 세인트키츠네비스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호주, 중국, 키르기스스탄
 - 그룹 V(a)(아프리카): 우간다
 - 그룹 V(b)(중동): 바레인

- 2019-2023년 임기
 - 그룹 I(서유럽·북미):
 - 그룹 II(동유럽): 러시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 그룹 V(b)(중동): 오만,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기타 회의 및 행사 결과

1. 교육(ED) 분과위원회 고위급 회의



1 교육(ED) 분과위원회 고위급 회의

- 회의 기간 및 장소

- 2019.11.13(수) 14:30-18:30 / Room II

- 요지

- 아줄레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학습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해 자격(qualification) 및 졸업(diploma) 인증을 포함한 현 고등교육 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함. 아울러 현 교육 체계의 혁신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화두로 “포용성과 이동성(inclusion and mobility)”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자주의적(multilateral) 협력을 강조함.
- 각 패널에서는 참여국 내 교육의 포용성 및 개방성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됨.

- 일정

- 기조강연(교육의 미래 보고서 국제위원회 위원)
- 패널토론1(고등교육 내 포용성)
- 패널토론2(고등교육 내 이동성)
- SDG-교육2030 운영위원회 공동발표문 낭독

- 상세내용

기조강연

Professor Fernando Reimers
하버드대학교 교수 / <교육의 미래> 보고서 국제위원회 위원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여년 안에 달성한다는 것은 분명 야심찬 목표임. 이러한 상황에서 SDG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빈곤,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현 시대의 복잡성과 가변성,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핵심 글로벌 이슈들(기후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현 시대가 전례 없이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네스코가 고위급 관계자 대상으로 정책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개진하면서, 교육 접근성을 괄목할 만하게 성장시켰음을 언급함.

패널 1

고등교육 내 포용성

- 패널들은 △ 보다 “친근한”(friendly) 고등교육 체계 마련 필요 △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국제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도움을 줄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야기에 “경청”(listen)하는 자세 필요 △ 고등교육 기관 자체가 포용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 필요. 교직원, 재정 및 운영체계 등에 있어 포용성, 형평성, 다양성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봐야 할 것임을 강조함.
- 회원국들은 포용정책 차원에서의 장학금 지원(쿠바, 중국), 고등교육 체계 내 인본주의적 가치의 반영(쿠바), 난민 대상 고등교육 가이드라인 마련/공유의 필요성(에티오피아), 여성 교원 비율 확대(스웨덴), 포용성 관련 모든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참여 증진(체코) 등을 강조함.

패널 2

고등교육 내 개방성

- 패널들은 △ 국제학생들의 이동성 강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체계 내 다양한 문화적 특성 반영 △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교육 체계 구성 및 국제학생 유입 확대 필요 △ 원주민(indigenous people) 등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제공 필요, 정부-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회원국들은 SDGs 전반의 달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기여 강조(아르헨티나), 시민성 중요(벨기에), 학부 영어수업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그리스), 한국 및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연계 및 협력(말레이시아), 오픈 액세스 및 ICT 등 첨단기술의 활용 중요(코트디부아르),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모로코) 등을 강조함.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한국 대표단 명단 및 주요 활동

1. 참가 목적
2. 대표단 명단
3. 주요 활동



1 참가 목적

-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
-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 유네스코 각종 사업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제반 정책 동향 파악
- 한국 관심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활동 홍보

2 대표단 명단

- 일반대표(5인)
 - 이병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 ※ 수석대표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문화장관포럼(11.19.) 참석
 -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
 - 김홍장 당진시장
 -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교체대표(5인)
 - 안은주 주유네스코대표부 공사참사관
 - 채홍준 주유네스코대표부 1등서기관
 - 김원영 주유네스코대표부 2등서기관
 - 박유진 주유네스코대표부 2등서기관
 - 안희정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행정사무관

● 자문단(48명)

- (주유네스코대표부) 이서윤 3등서기관, 김지현 주재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우진 교육본부장, 신미아 개발협력본부장, 서현숙 국제협력팀장, 신종범 유네스코학교팀장, 전진성 문화팀장, 주준호 브릿지팀장, 오혜재 교육팀장, 김영은 커뮤니케이션팀장, 김은영 과학청년팀장, 노지원 감사평가실장, 백영연 국제협력팀 전문관, 박다혜 국제협력팀 전문관
-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조성식 선임전문관, 이해원 전문관, 이미소 전문관, 이강혁 전문관
- (유네스코아태교육원) 임현목 원장, 정경화 국제협력실장, 이국희 책임전문관, 김현 책임전문관
- 김덕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수석전문관
- (문화체육관광부) 윤광식 정책보좌관, 강규호 행정사무원, 김철민 문화정책관, 허진웅 행정사무원, 허만진 주무관,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 홍지원 해외문화홍보원 과장, 김은승 해외문화홍보원 전문관
- (당진시청) 이일순 문화관광과장, 강인경 비서실장, 박혜영 대외협력팀장, 장승률 학예연구사
-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부이사관, 강승철 서기관(세계자연보전연맹 파견), 오수미 주무관, 이승아 주무관
- (천주교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 이용호 신부, 김성태 신부, 김경식 신부, 김대은 연구원
- 박경립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 김수태 충남대학교 교수
-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3 주요 활동

-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 본회의 및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 등 회의 참석 및 발언
 - ※ 11월 15일: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 수석대표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
- 국가위원회 총회 참석
- 기타 회의 및 행사 참석
 - 교육 분과위원회 고위급 회의, 신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 업무 협의
 - 본부 사무국, 회원국 및 국가위원회 간 업무 협의
- 주요 인사 면담 등



참고자료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
2. 사진 자료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

Speech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ral Policy Debate of the 40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Mr.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Mr. Chairperson of the Executive Board,
Madam Director-General,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At the outset I wish to congratulate H.E. Ambassador Ahmet Altay Cengizer on his assumption of the Presidency of the General Conference. I am confident that the 40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will be a resounding success under his leadership.

In 1945,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UNESCO was born out of the hope to build world peac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the sciences and culture.

And the Republic of Korea's journey with UNESCO started just 11 day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Toda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success story of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could transform a war-devastated country into a major contributor to the very Organization which helped to rebuild itself.

Mr. President,

Nowhere is it truer tha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defences of peace should be built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its endeavor to achieve permanent peace in the Peninsula, based on three principles: zero tolerance for war; a mutual security guarantee between the two Koreas; and co-prosperity through a peace economy.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the idea of transforming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The DMZ, dividing the two Koreas, paradoxically has become an ecological treasure trove and a symbolic space embodying both tragedy of division and pursuit of peace.

We hope to work together with the DPRK and UNESCO, amid bless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scribe the DMZ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once peace is established between the two Korea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Madam Director-General for her invaluable support for this peace project.

We would like to continue to explore many more avenues of cooperation, taking firm and steady steps towar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r. President,

Concerning documentary heritage, the ROK strongly supports the original values and purpos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We will continue our active participation in working group discussions to ensure that the ongoing comprehensive review will strength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by all.

In light of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long-cherished by this Organization, we hope to find the best mechanism which does not permit a veto power for anyone.

Mr.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UNESCO need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educa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SDG4-Education 2030.

We believe that UNESCO has the best expertise to promote global educational agenda and to pursue the global normative work. We urge UNESCO to redouble efforts to set the strategic priorities, preparing for the future education discourse, while strengthening coordin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natural sciences,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2021 to 2030 will be another watershed moment for ocean protection and manage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fully committed to this initiative. In addition, we proposed an establishment of a new Category II Centre,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for better management of those sites to achieve SDGs.

On communication,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ROK will cohost with UNESCO the 2020 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onference and Youth Forum in Seoul in October next year.

The ROK has organized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heritage interpretation every year since 2016, seeking for harmonious coexistence of different historical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of world heritage.

We are also supporting an expert meeting and related thematic study to better understand sites associated with memory of recent conflicts.

In this line we proposed to establish a new category II center in Korea,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

Finally, Mr. President,

I would like to reiterate Korea's support for UNESCO's continued reform. We hope that the outcome of the ongoing strategic transformation will further strengthen UNESCO's abilities to implement the relevant 2030 agenda and SDGs.

During the past 70 years of cooperation with UNESCO, Korea has not only benefited from UNESCO's assistance and expertise in education, sciences and culture, but also from sharing universal values upheld by the Organ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work with UNESCO onward and toward promoting peace based on moral and intellectual solidarity of humankind.

I thank you Mr. President.

2 사진 자료



사진 1. 개회식 (오른쪽부터)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H.E. Mrs. Zohour Alaoui 제39차 총회 의장, Mr.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이병현 집행이사회 의장



사진 2. 개회식



사진 3. 개회식에 참석한 청년 대표단



사진 4. 일반정책토론 : 김동기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사 기조발언



사진 5. 신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역량강화 워크샵에서 발표 중인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사진 6. 제6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인쇄일 2019년 12월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외교부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쇄/제책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세종인쇄정보